

2018

GLOBAL HUNGER INDEX

강제이주와 기아



2018

GLOBAL HUNGER INDEX

강제이주와 기아

Klaus von Grebmer, Jill Bernstein, Fraser Patterson, Andrea Sonntag, Lisa Maria Klaus, Olive Towey, Connell Foley, Seth Gitter, Kierstin Ekstrom, and Heidi Fritschel

Guest Author

Laura Hammond, SOAS University of London

Dublin / Bonn

2018년 10월

A Peer-Reviewed Publication





11만2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남수단 최대의 벤티우(Bentiu)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한 여성이 차와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 남수단은 5년째 계속되는 분쟁으로 대규모 이주를 겪었고, 이는 식량과 영양 부족으로 이어졌다. 현재 7천1백만 명의 인구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FOREWORD

올해 세계기아지수는 기아와 영양결핍과 싸우면서 이루어 낸 전진과 기아종식과 고통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도달해야 했던 목표지점 사이의 괴로운 격차를 보여준다.

컨선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가 공동으로 발행한 2018 세계기아지수는 전세계 기아 상황을 추적하고 가장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곳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기아와 영양결핍이 감소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이처럼 기아와 영양결핍 해결에 큰 진전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지역들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악화되었다. 매우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아로 인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강제이주의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치는 충격적이고 심각하다.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인구는 2년 전의 8천만 명에서 현재는 약 1억2천4백만 명으로 급증했다.** 기아와 영양결핍은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1억5천1백만 명의 아이들이 발육부진 상태이며 5천1백만 명의 아이들이 저체중-허약 상태에 놓여있다. 분쟁, 기후변화, 취약한 거버넌스를 비롯한 다양한 도전들은 어렵게 이루어 낸 성취들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근본 원인과 복잡한 현실에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서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5년, 전세계 국가들은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커녕, 우리는 아직 본 궤도에도 진입하지 못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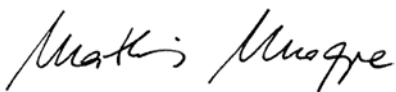
올해, 우리는 기아지수 순위와 함께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 두 국가의 기아와 영양결핍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사례연구를 통해 기아의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요인들이 어떤 정책 환경에서 작동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2018 세계기아지수에서 두 나라의 기아 상태는 여전히 '심각(Serious)'한 수준이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상황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보고서는 강제이주와 기아 주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런던대 SOAS의 로라 해먼드(Laura Hammond)는 에세이를 통해 기아가 대규모 이주의 원인일수도 있고 그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둘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기아와 이주는 둘 다 정치적인 문제이다. 단기적인 긴급구호 조치는 작년과 수십년간 발생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너무나 종종, 우리는 문제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위기의 본질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아와 이주를 유발하는 정치적인 요인에 맞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장기개발 접근을 강화하며, 가능하다면 이주민들이 떠난 고향에서 생계수단을 확보하도록 돕고, 이주민들의 자조(Self-help)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기아와 강제이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직 어떤 종류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해당 정부의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주 이슈가 계속 새로운 정치적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적 담론은 인도주의보다는 강경 노선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올해 세계기아지수는 단지 기아와 강제이주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주의환기가 아니다. 인간의 권리는 고사하고 매일 밤 굶주리며 잠드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말도 안되는 오늘의 현실을 타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인간애의 부활(Resurgence of humanity)을 시급히 요청하는 바이다.



Mathias Mogge
Secretary General
Welthungerhilfe



Dominic MacSorley
Chief Executive Officer
Concern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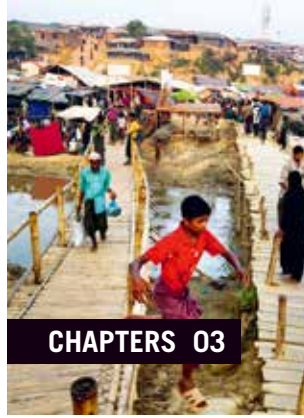
CONTENTS



CHAPTERS 01



CHAPTERS 02



CHAPTERS 03



CHAPTERS 04

SUMMARY	5
CHAPTERS	
01 세계기아지수란 무엇인가	6
02 세계, 지역, 국가별 트렌드	8
03 강제이주와 기아	18
04 정책 권고	26
APPENDIXES	
A 세계기아지수 점수 산출 공식	28
B 자료는 부족하지만 주목해야 할 국가	29
C 2000, 2005, 2010, 2018 세계기아지수 산출기초자료	30

*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 국가사례연구는 컨선월드와이드 웹사이트(www.concer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MMARY

2018 세계기아지수를 보면 전 세계에서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기아 감소는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극심한 기아와 영양결핍에 허덕이는 지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곳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이다.

세계적 추이

전세계 기아와 영양결핍 수준은 20.9점으로 '심각(Serious)'한 단계로 낮아졌다. 이는 2000년의 29.2점에서 28%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4가지 지표(영양결핍 인구, 저체중-허약 아동, 발육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덕분이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시키겠다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만약 기아와 영양결핍 감소의 진전이 현재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약 50개 국가는 2030년까지 세계기아지수 기준상 '낮음(low)' 단계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지역별 추이

기아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2018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남아시아는 30.5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9.4점으로 모두 '심각'한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지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기아 지수는 7.3점에서 13.2점을 기록하며 '낮음' 혹은 '보통(Moderate)'단계에 위치한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둘다 영양결핍, 저체중-허약 아동, 발육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에서 모두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00년과 비교하면 남아시아의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은 전체 아동의 절반에서 3분의 1 이상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발육부진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심지어 남아시아의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은 200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영양결핍 인구와 영·유아 사망률 비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높다. 분쟁과 열악한 기후 조건은 해당 지역의 영양결핍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에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10개국은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그 중 7개국은 취약국가(Fragile states)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의 추이

기아와 영양결핍은 수십 개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높다. 2018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기아 수준은 '극히 위험(Extremely alarming)'한 단계이며 차드,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수단, 잠비아 등 6개국은 '위험(Alarming)'단계에 위치한다. 119개국 중 45개국은 기아 위험이 '심각'한 단계이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올해 세계기아지수는 27개국이 '보통' 단계이고 40개국이 '낮음' 단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국가별 기아 지수는 국경이라는 틀로 상당한 변수들을 감출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는 기아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데 과테말라의 어떤 지역은 발육부진 비율이 25%에서 70%까지 큰 격차를 보인다. 부룬디의 경우, 가장 낮은 발육부진 수준을 가진 지역들은 주로 도시에 해당한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수치들에 해당된다.

강제이주와 기아

올해의 에세이에서 로라 해먼드는 강제이주와 기아를 들여다보았다.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 극심한 분쟁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얽히고설킨 중대한 도전이다. 전세계 이주민의 규모는 6천850만 명에 달한다. **그 중 4천만 명이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고, 2천540만 명이 난민(Refugees)이며 310만 명이 망명신청자(Asylum seekers)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기아는 강제이주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식량이 부족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기아와 이주는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 장기화된 강제이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 지원을 포함해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식량 부족을 겪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출신국에서 제공한다.

→ 지원은 이주민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주민이라고 해서 회복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2018 세계기아지수는 강제이주와 기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체적인 대응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나라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주민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박스 1.1 기아란 무엇인가

기아는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기아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기아란 대체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을 뜻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결핍이나 영양 결핍을 성별, 연령, 신장,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개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열량을 식사에서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영양 부족은 칼로리 섭취를 넘어서 열량이나 단백질, 필수비타민과 미네랄에서 어느 것 하나 또는 전부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영양 부족은 질이나 양에서 음식 섭취가 불충분하거나 감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두 가지가 결합해서 일어난다. 가정에 식량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의 건강이 나쁘거나 자녀 양육이 허술한 경우, 혹은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물,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등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영양실조는 영양 부족(결핍 문제)과 영양 과잉(미량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제대로 섭취하는 지 여부와 함께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는 불균형한 식사 문제)을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 보고서에서 '기아'란 네 가지 지표에 바탕을 둔 지수를 말한다. 네 가지 지표는 칼로리 결핍뿐 아니라 미량영양소 결핍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세계기아지수는 기아의 양면을 모두 반영한다.

출처: 필진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영양 결핍 비율을 추산할 때 인구를 나이와 성별로 구성하고, 인구의 신체 활동 수준 범위와 표준 신장에 이른 건강한 신체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균 최저 열량 기준을 산출한다(FAO/IFAD/WFP 2015).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데, 2016년 개발도상국은 일인당 하루 대략 1,650kcal에서 2,000kcal(식품 칼로리) 이상이다(FAO 2017b).

파이잘(36세)은 소말릴란드의 바키(Baki) 지역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소말릴란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이주했지만

농촌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투자 그리고 농업훈련 덕분에 농부들에게 미치는

가뭄의 악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세계기아지수란 무엇인가

세계기아지수(GHI)는 세계와 지역, 국가 단위에서 기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추적, 관측하는 도구이다. 세계기아지수를 통해 기아와 싸워야 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와 지역 간 기아 상황을 비교할 수단을 제공하며, 기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곳을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행목적이다.

세계기아지수는 네 가지 지표 * 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기아를 측정한다.

- 1. 영양 결핍:** 영양 결핍에 걸린 인구의 비율(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인구)
- 2. 저체중-허약 아동:** 체중이 미달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신장에 비해 체중이 가벼운 것으로 급성 영양실조의 지표)
- 3. 발육부진 아동:**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의 비율(나이에 비해 신장이 작은 것으로 만성 영양실조의 지표)
- 4. 영·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불충분한 영양 섭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이 만난 치명적인 상승효과를 부분 반영)

네 가지 지표를 통해 기아를 측정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세계기아지수 공식에 들어가는 이 요소들은 칼로리 결핍과 영양 부족을 반영한다. 특별히 아동 관련 요소를 포함한 세계기아지수는 인구 전체의 영양 실태뿐 아니라 아동의 영양 실태까지 잘 보여준다. 아동은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식사를 통한 열량이나 단백질, 미량영양소(필수비타민과 미네랄)가 부족하면 질병과 신체적, 인지적 발달 저하, 그리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세계기아지수에 아동의 저체중과 발육부진을 포함시키면 급성 영양실조와 만성 영양실조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지표를 통합하여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세계기아지수의 무작위적 측정 오차를 최소화한다.

세계기아지수는 100점 기준으로 0점은 최고 점수(기아 전무), 100점은 가장 나쁜 점수이다. 실제로 어느 극단에도 도달할 수 없다. 0점은 국가 어디에도 영양 결핍에 걸린 사람이 없고,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저체중과

그림 1.1 세계기아지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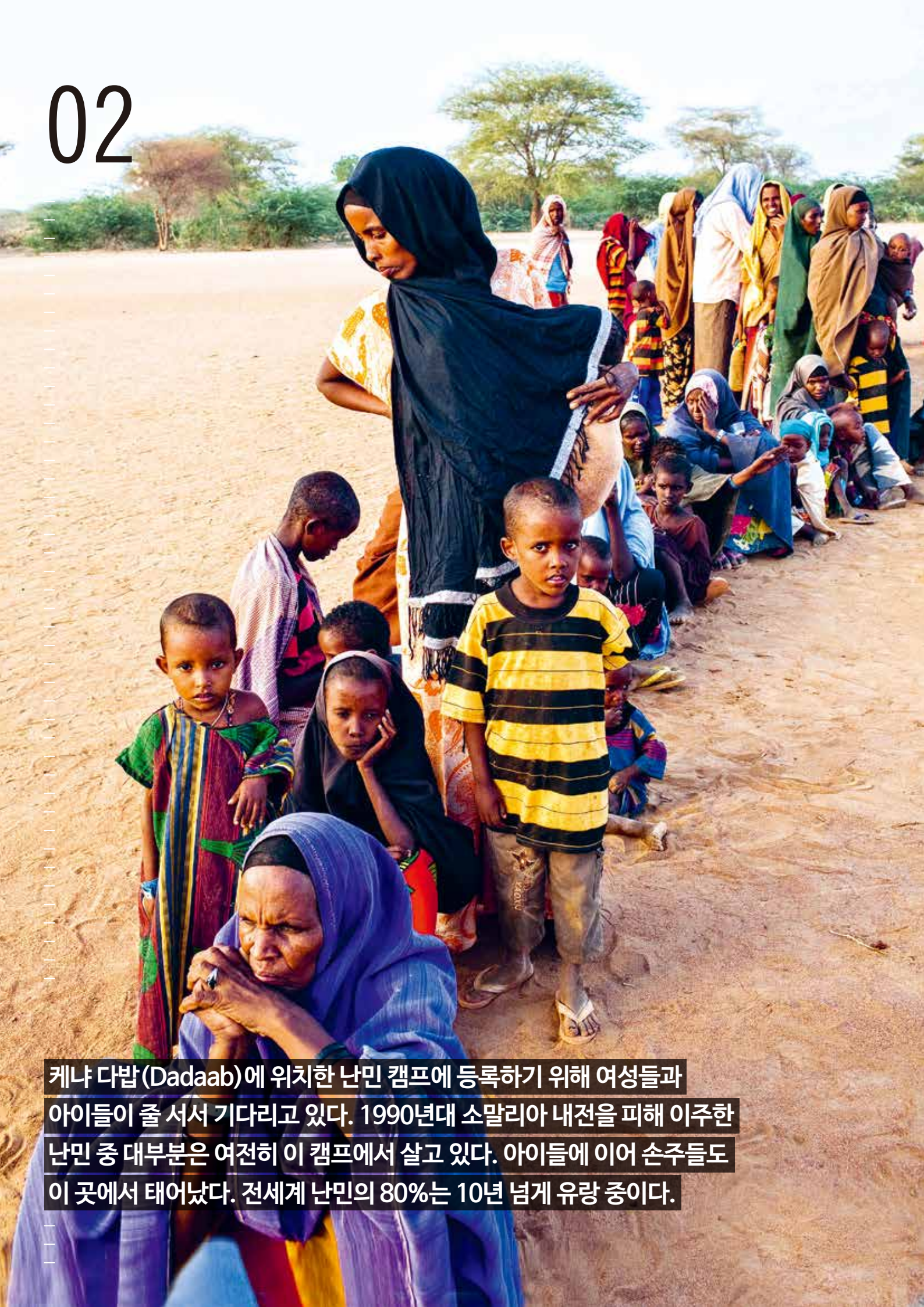
출처: Wiesmann et al. (2015).

주: 구성 지표 네 가지는 표준 값이다. 세계기아지수 산출 공식은 Appendix A를 참고한다.

발육부진이 없고 5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 사망하는 아동이 없다는 뜻이다. 100점은 그 국가의 영양결핍, 저체중-허약 아동, 발육부진 아동,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의 수준이 최근 수십년 간 거의 전세계에서 관측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기아지수 단계표(GHI Severity Scale)는 낮은 단계에서 극히 위험한 단계까지의 기아 수준과 각 단계별 세계기아지수를 보여준다.

세계기아지수 단계표				
≤ 9.9 낮음 (low)	10.0-19.9 보통 (moderate)	20.0-34.9 심각 (serious)	35.0-49.9 위험 (alarming)	50.0 ≤ 극히 위험 (extremely alarming)
0	10	20	35	50

출처: 필진



케냐 다바(Dadaab)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 등록하기 위해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이주한 난민 중 대부분은 여전히 이 캠프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에 이어 손주들도 이 곳에서 태어났다. 전세계 난민의 80%는 10년 넘게 유랑 중이다.

세계, 지역, 국가별 트렌드

세계적 추이

2018 세계기아지수는 전세계 기아와 영양결핍 수준이 2000년 29.2점에서 20.9점으로, 여전히 '심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2.1)¹ 이 같은 발전은 2000년부터 세계기아지수의 네 지표인 영양결핍, 발육부진 아동, 저체중-허약 아동,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로 가능했다.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들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1999-2001년 17.6%에서 2015-2017년 12.3%로 감소했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1998-2002의 37.1%에서 2013-2017년 27.9%로 낮아졌고, 저체중-허약 아동은 9.7%에서 9.3%로 소폭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00년 8.1%에서 2016년 4.2%로 하락했다.²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시키겠다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UN 기관들은 세계기아지수에 사용된 각 지표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 영양실조가 사라진 세상은 아직 요원하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저체중-허약, 극심한 허약, 그리고 비만 등을 종합했을 때 세계보건총회목표(2025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2030년)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느린 속도이다. (UNICEF/WHO/World Bank 2018b)

→ 2030년까지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는 실로 도전적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아 종식과 영양결핍 해결은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FAO/IFAD/UNICEF/WFP/WHO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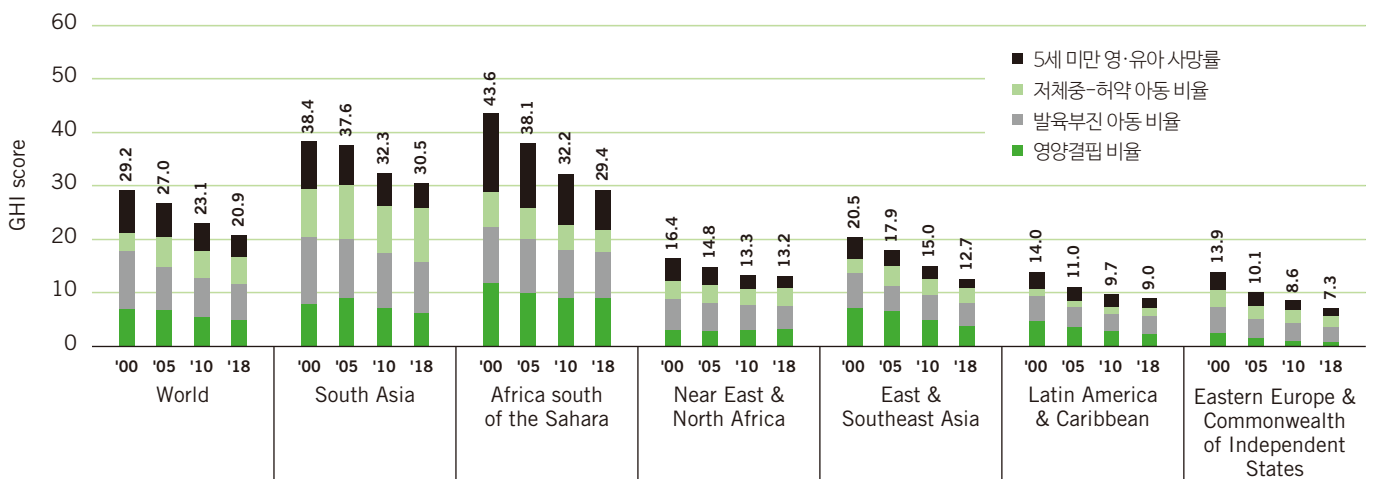
→ 아동 생존 측면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려면 60개국 이상이 현재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UNIGME 2017b)

이러한 진술들은 기아 종식이 지금 이상의 노력과 새로운 접근법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임을 뜻한다. 2000년 이후 관찰된 기아 감소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약 50개국은 2030년까지 '낮음' 단계의 기아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2018년 현재는 79개국이 해당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들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아 종식이라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세계의 어느 곳이 가장 힘겨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섹션은 지역, 국가, 국내 지방 수준에서의 기아와 영양결핍 상황을 살펴보고, 지난 기간동안 해당 수치가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¹ 세계적 추이는 본 보고서의 132개 국가에 대한 세계기아지수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했다. 다른 기관이 같은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국가를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² 블랙(Black et al., 2013)은 전세계 아동 사망자수의 거의 절반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고 분석했다.

그림 2.1 2000 ~ 2018년 세계와 지역별 세계기아지수



출처: 필진.

지역별 추이

2018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남아시아는 30.5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9.4점으로 모두 '심각'한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지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기아 지수는 7.3점에서 13.2점을 기록하며 '낮음' 혹은 '보통'단계에 위치한다. (그림2.1)

기아 지수가 '낮음'과 '보통' 단계의 지역이지만 기아와 영양실조가 높은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세계기아지수는 겨우 9.0점에 불과하지만,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올해 '위험' 또는 '극히 위험' 단계로 분류되는 7개국 중 하나이다. 7개국 중 다른 국가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예멘이 있다. 이 지역의 기아 지수는 13.2점으로 '보통' 단계이지만, 예멘은 39.7점으로 기아 지수가 세번째로 높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세계기아지수는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지역 둘다 영양결핍, 저체중-허약 아동, 발육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에서 모두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인다. 특히 남아시아는 모든 지역 중에서 아동의 발육부진과 저체중-허약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영양결핍과 영·유아 사망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높았다. 그 뒤는 남아시아가 이었다.

남아시아의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비상사태로 간주된다(UNICEF/WHO/World Bank 2018b). 2000년 이후 감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 의한 영향도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은 21%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도를 제외해도 남아시아의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은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다. 남아시아 저체중-허약 아동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은 5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신생아들이 저체중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출생결과와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이 특히 중요하다. 더구나 엄마의 낮은 체질량지수(BMI)는 아이의 저체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엄마의 영양상태는 출산과 이후의 아이의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콩계도, 남아시아에서는 가정의 재정적 능력보다는 엄마의 체질량지수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때문에 빈곤 감소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Harding, Aguayo, and Webb 2018)

남아시아의 발육부진 아동 비율 또한 매우 높다. 해당 비율은 2000년에 전체 아동의 절반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3분의 1 이상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아시아에서 발육부진 아동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주식 외 식품의 소비 증가,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여성의 교육, 젠더 평등,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식량 공급개선 등이 포함된다. (Smith and Haddad 201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영양결핍 비율은 2015-2017년 기준 22%로 2009-2011년 이후 소폭 증가했다(FAO 2018d).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분쟁이 이 지역에서 파괴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장기간 내전 등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영양결핍 비율을 보였다(FAO 2017c). 다른 요인으로는 악화된 기후 조건을

들 수 있다.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 2015-2016년에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화되고 수확량과 가축의 수가 감소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기후 변화와 분쟁의 영향이 결합되어 영양결핍 비율을 더 증가시킨다(FAO 2017c).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5세 미만 아동의 높은 사망률은 또한 부분적으로 분쟁에 기인한다. 취약국가에서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거의 2배가 높다.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10개국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이들 중 7개국은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분류된다(UN IGME 2017b). 분쟁에 따른 불안정은 아동기 영양결핍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 약화와 미숙아 사망 등으로 연결된다(Tamashiro 2010).

몇 가지 유사점이 있긴 하지만,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아와 영양결핍은 그 본질과 원인이 크게 다르고 별개의 해결책을 요구한다. 최근 몇 년간 큰 위기와 기근 위협으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부족은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의 아동 영양에 대한 위기 또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분쟁의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동시에 주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면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촉진하고 다양한 음식을 충분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 추이

표 2.1은 기아 수준이 낮은 나라부터 높은 나라까지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고 2000-2018년 세계기아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별첨자료(Appendixes C)는 각 국가의 세계기아지수의 지표 값, 즉 영양결핍, 저체중-허약 아동, 발육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을 기간별로 보여준다. 개별 지표는 각 국가의 기아와 영양결핍의 본질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018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6개국의 기아 수준이 '위험'한 단계이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유일하게 '극히 위험'한 단계에 올랐다. '위험'한 국가들은 차드,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예멘 그리고 잠비아이다. 조사대상 총 119개국 중 45개국이 '심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몇몇 국가는 4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없어 세계기아지수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 7개국의 기아와 영양결핍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Appendixes B).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등 7개국에서 목격된 폭력적 분쟁, 정치적 불안, 그리고 극심한 빈곤은 대규모 강제이주를 촉발시켰고 이는 챕터 3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식량부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53.7점으로 올해 가장 높은 세계기아지수를 기록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012년부터 불안정, 종파간 폭력, 내전을 겪고 있다. 생계수단은 모두 사라지고 시장은 붕괴되며 식량 안보는 날이 악화되고 있다(USAID 2017a).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인구 500만 중 100만명이 국내나 해외로 이주했다(IDMC 2018a). 이주민들의 농업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식량 공급은 더 위축되고 식량부족이 증가했다(FAO 2018a). 세부적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61.8%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표 2.1 2000 ~ 2018년 세계기아지수 순위

Rank ¹	Country	2000	2005	2010	2018	Rank ¹	Country	2000	2005	2010	2018
2018 GHI scores less than 5, collectively ranked 1-15 ²	Belarus	5.0	<5	<5	<5	67	Sri Lanka	22.3	21.2	17.9	17.9
	Bosnia & Herzegovina	9.8	7.2	5.1	<5	68	Myanmar	44.4	36.4	25.9	20.1
	Chile	<5	<5	<5	<5	69	Philippines	25.9	21.6	20.6	20.2
	Costa Rica	6.1	5.6	5.0	<5	70	Guatemala	27.5	23.8	22.0	20.8
	Croatia	6.2	<5	<5	<5	71	Cameroon	41.2	33.7	26.1	21.1
	Cuba	5.3	<5	<5	<5	72	Nepal	36.8	31.4	24.5	21.2
	Estonia	6.7	5.4	<5	<5	73	Indonesia	25.5	26.5	24.5	21.9
	Kuwait	<5	<5	<5	<5	74	Iraq	26.5	24.9	24.4	22.1
	Latvia	6.9	5.0	<5	<5	75	Gambia	27.3	26.2	22.3	22.3
	Lithuania	5.0	<5	<5	<5	76	Swaziland	28.9	27.6	26.7	22.5
	Montenegro	—	—	<5	<5	77	Kenya	36.5	33.5	28.0	23.2
	Romania	8.3	6.8	6.1	<5	78	Cambodia	43.5	29.6	27.8	23.7
	Turkey	10.3	7.3	5.3	<5	78	Lesotho	32.5	29.7	26.3	23.7
	Ukraine	13.6	5.0	<5	<5	80	Benin	37.5	33.5	28.1	24.3
	Uruguay	7.7	8.1	5.4	<5	80	Namibia	30.6	28.4	30.9	24.3
16	Bulgaria	8.2	7.8	7.0	5.0	80	Togo	39.1	36.4	27.1	24.3
16	Slovak Republic	7.2	6.8	5.8	5.0	83	Lao PDR	48.0	35.8	30.3	25.3
18	Argentina	6.7	6.2	5.9	5.3	84	Botswana	33.1	31.2	28.4	25.5
19	Kazakhstan	11.3	12.4	8.8	5.5	85	Côte d'Ivoire	33.7	34.7	31.0	25.9
20	Macedonia, FYR	7.7	8.5	7.0	5.9	86	Bangladesh	36.0	30.8	30.3	26.1
21	Russian Federation	10.1	7.7	7.0	6.1	87	Malawi	44.7	37.8	31.4	26.5
22	Mexico	10.8	9.1	7.7	6.5	88	Mauritania	33.5	29.7	24.8	27.3
22	Serbia	—	—	6.7	6.5	89	Burkina Faso	47.4	48.8	36.8	27.7
24	Iran	13.5	9.4	8.1	7.3	90	Mali	44.2	38.7	27.5	27.8
25	Armenia	18.4	12.8	11.3	7.6	91	Rwanda	58.1	44.8	32.9	28.7
25	China	15.8	13.0	10.0	7.6	92	Guinea	43.7	36.8	30.9	28.9
27	Colombia	11.3	10.8	10.0	7.7	93	Ethiopia	55.9	45.9	37.2	29.1
28	Tunisia	10.7	8.6	7.6	7.9	93	Guinea-Bissau	42.4	40.3	31.0	29.1
29	Trinidad & Tobago	11.7	12.2	12.2	8.0	95	Angola	65.6	50.2	39.7	29.5
30	Georgia	14.6	10.5	8.4	8.1	95	Tanzania	42.4	35.8	34.1	29.5
31	Brazil	13.0	7.0	6.6	8.5	97	Papua New Guinea	30.9	28.2	34.3	29.7
31	Paraguay	13.9	12.5	11.4	8.5	98	Djibouti	46.7	44.1	36.5	30.1
31	Saudi Arabia	11.5	13.8	9.7	8.5	99	Congo, Rep.	37.8	37.2	32.2	30.4
34	Jamaica	8.4	8.2	8.5	8.6	99	Niger	52.5	42.6	36.5	30.4
35	Peru	20.9	18.4	12.5	8.8	101	Comoros	38.0	33.6	30.4	30.8
36	Fiji	9.8	9.3	8.6	9.0	102	Mozambique	49.1	42.4	35.8	30.9
37	Panama	19.8	17.7	12.6	9.1	103	India	38.8	38.8	32.2	31.1
38	Kyrgyz Republic	18.8	14.0	12.4	9.3	103	Nigeria	40.9	34.8	29.2	31.1
39	Algeria	15.6	12.9	10.6	9.4	105	Uganda	41.2	34.2	31.3	31.2
40	Azerbaijan	27.4	17.4	12.3	9.5	106	Pakistan	38.3	37.0	36.0	32.6
41	El Salvador	16.3	13.3	12.8	10.1	107	Zimbabwe	38.7	39.7	36.0	32.9
42	Suriname	16.0	12.5	10.5	10.2	108	Liberia	48.4	42.0	35.2	33.3
43	Dominican Republic	18.4	17.2	13.0	10.3	109	North Korea	40.3	32.9	30.9	34.0
44	Morocco	15.7	17.8	10.2	10.4	110	Timor-Leste	—	41.8	42.4	34.2
44	Thailand	18.3	13.3	12.9	10.4	111	Afghanistan	52.3	43.2	35.0	34.3
46	Oman	13.7	14.7	9.8	10.8	112	Sudan	—	—	—	34.8
47	Mauritius	15.9	15.2	14.1	11.0	113	Haiti	42.7	45.2	48.5	35.4
48	Jordan	12.2	8.5	8.3	11.2	114	Sierra Leone	54.4	51.7	40.4	35.7
49	Venezuela	15.2	12.7	8.4	11.4	115	Zambia	52.0	45.8	42.8	37.6
50	Lebanon	9.1	10.3	8.0	11.7	116	Madagascar	43.5	43.4	36.1	38.0
51	Ecuador	20.6	17.6	14.1	11.8	117	Yemen	43.2	41.7	34.5	39.7
52	Uzbekistan	23.7	17.9	15.6	12.1	118	Chad	51.4	52.0	48.9	45.4
53	Albania	21.6	16.9	15.4	12.2	119	Central African Republic	50.5	49.6	41.3	53.7
53	Turkmenistan	22.0	17.4	15.3	12.2						
55	Guyana	17.8	16.9	15.9	12.6						
55	Mongolia	31.7	24.9	15.8	12.6						
57	Malaysia	15.5	13.0	11.9	13.3						
58	Nicaragua	24.7	17.8	16.4	13.6						
59	Honduras	20.6	17.7	14.7	14.4						
60	South Africa	18.1	20.8	16.1	14.5						
61	Egypt	16.4	14.3	16.3	14.8						
62	Ghana	29.0	22.2	18.2	15.2						
63	Gabon	21.1	19.0	16.7	15.4						
64	Viet Nam	28.2	23.8	18.8	16.0						
65	Bolivia	30.3	27.1	21.8	16.7						
66	Senegal	37.3	27.8	24.1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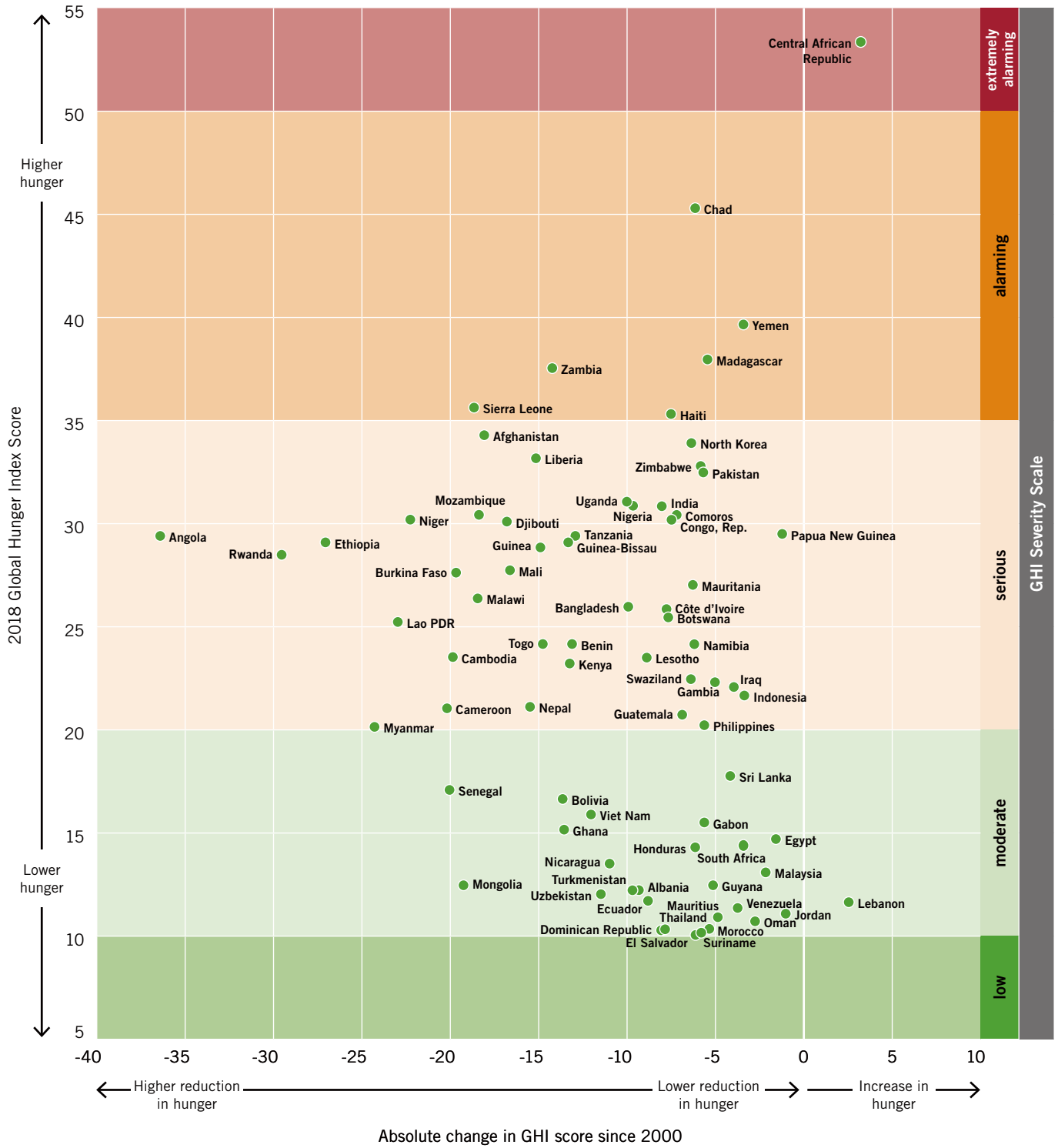
— = 자료 없음 또는 미공개.

참고: 상기 순위와 점수는 이전의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실린 수치들과 비교할 수 없음

¹ 점수가 같은 국가는 순위가 같다. 일부 국가는 자료 부족으로 제외했다. (바레인, 부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리비아, 몰도바, 카타르,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² 점수가 5점 미만인 15개국은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함께 1-15위로 묶었다. 이들 간 점수 차이는 미미하다.

그림 2.2 2018 세계기아지수 점수 및 2000년 이후의 변화



출처: 필진.

영·유아 사망률 또한 12.4%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발육부진 아동과 저체중-허약 아동의 숫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분쟁과 강제이주가 어떻게 기아와 영양결핍을 악화시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국경을 맞닿은 **차드**는 45.4점으로 두 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은 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차드의 식량 안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웃 국가의 분쟁과 불안정, 인구 이동, 목축업자들의 교역조건 악화, 농업 흉작기, 만성적인 빈곤, 낮은 경제발전, 기후 변동성' 등을 들고 있다(FAO 2018c).

예멘의 기아 지수는 39.7점으로 세 번째로 높으며 올해 '심각'한 단계로 떨어졌다. 분쟁 속에서 예멘의 일부 인구는 2017년에 매우 높은 기근 위험에 처해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2018년에도 계속 기근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FEWS NET 2018d). 예멘은 식량과 연료를 모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17년 말에 시작된 분쟁으로 인한 봉쇄로 주요 물품의 국내 유입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그 이후로 수입은 일부 재개되었지만 추가적인 제재의 위험은 주민의 식량 안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FEWS NET 2018d). 2013년 기준으로 예멘 아동의 거의 절반인 46.5%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고 16.3%가 저체중 상태여서 심각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해당된다.

35.4점으로 '심각' 단계인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기아 지수가 가장 높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7번째로 높다. 2015-2017년 45.8%에 달하는 영양결핍 비율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소말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낮은 농업 생산력은 부분적으로 심각한 환경 훼손에 기인하며, 이는 국가의 식량 공급능력에 부담을 준다. 아이티는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CFR 2018). 빈곤은 널리 퍼져 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필수 식량을 확보하는 능력을 제한한다(USAID 2017b). 상황은 3십만명의 사망자와 1백만명 이상의 이주민을 만든 2010년 아이티 대지진으로 악화되었다(DesRoches et al. 2011). 그리고 2016년에 강타한 허리케인 매튜는 아이티의 붕괴와 빈곤을 더 심화시켰다(World Bank 2017b).

국가들의 세계기아지수 순위 외에도, 세계기아지수 4개 지표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영양결핍 비율은 짐바브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46.6%~61.8%)
- 발육부진 비율은 동티모르, 에리트레아, 부룬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
- 저체중-허약 아동은 지부티(16.7%), 인도(21%), 남수단(28.6%)에 가장 만연되어 있다.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소말리아(13.3%), 차드(12.7%), 콩고민주공화국(12.4%)이 가장 높다.

이러한 냉혹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올해 세계기아지수에서는 27개국의 기아 수준이 '보통' 단계이고 40개국이 '낮음'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아와 영양결핍이 가장 높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가봉, 가나, 모리셔스, 세네갈, 남아프리카, 스리랑카가 '보통' 단계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세네갈**의 세계기아지수는 17.2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양결핍 비율 11.3%, 발육부진 아동 비율 17%,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 7.2%, 영·유아 사망률 4.7%를 각각 기록했다. 발육부진 아동 비율은 2000년의 29.5%에서 크게 감소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번째로 낮으며, 영양결핍과 영·유아 사망률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발육부진 아동의 감소는 부, 건강 관리, 부모 영양, 교육의 향상 덕분이다(Headey, Hoddinott, and Park 2017). 또한 세네갈 정부는 영양 관련 고등조정기구 설립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영양'을 국가 정책과 제도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Kampman et al. 2017). 정부는 경제성장과 식량안보의 주요 원천인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USAID 2017c).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은 여전히 해안 침식, 강우량 패턴의 붕괴, 토양 염류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IRIN 2017).

그림 2.2는 2018 세계기아지수와 함께 2000년 이후 국가들이 이룬 성과를 보여준다. 2000년까지만 해도 '극히 위험' 단계였던 앙골라, 에티오피아, 르완다는 세계기아지수가 20점 이상 낮아져 현재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십 년간 파괴적인 내전을 경험했지만 식량과 영양 안보가 크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예는 현재 극심한 분쟁과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분쟁이 멈추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국내 추이

국가 수준의 기아와 영양결핍율을 이해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국가 점수는 국경 안의 상당한 차이들을 감출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지방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주목받지 못하거나 해결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국가 내의 개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기아와 영양결핍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최적의 개입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2.3은 65개국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의 국내 격차를 보여준다.³ 아동 발육부진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건강이나 질병 재발과 관련된 미량영양소의 불충분한 섭취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지표이다. 이 그림은 국가별 평균 발육부진 비율과 함께 국내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도 보여준다. 영양과 건강의 불평등 외에도 지방의 숫자, 인구 규모, 땅 면적, 국가 평균 발육부진 등 여러 요인들이 발육부진의 국내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³ 국내 아동 발육부진 자료는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고 저체중 지표와 달리 계절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강조된다.

세계 각지의 국가들은 발육부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낮은 기아 수준을 가진 지역 중 하나이지만 **과테말라**의 발육부진은 25%에서 70%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다. 가장 높은 발육부진 비율은 서부 고원에서 발견된다. 서부 고원은 원주민이 많이 살고 내전(1960-1996)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다(IFAD 2012). **페루**에서는 토착민들이 비토착민들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나타나고 아동에게는 발육부진과 영양실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더 많다(Ramirez-Zea et al. 2014). 발육부진 비율은 타크나(Tacna) 해안지역이 2.3%이고 우양카벨리카(Huancavelica) 산악지역과 토착민 밀집지역은 33.4%로 큰 차이가 난다. 페루의 평균 발육부진 비율은 2004-2006년 30%에서 2016년 13.1%로 최근 급격히 하락했다. 이 기간동안 가장 큰 감소는 43.2%에서 21.2%로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했다(INEI et al. 2007; INEI 2017). 페루의 발육부진 감소는 빈곤층 가정 비율, 도시화, 여성의 등교 등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Huicho et al. 2017). 그렇다고 해서 우양카벨리카와 토착민 집단이 사는 지역이 겪고 있는 도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최저 수준의 발육부진은 수도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국내 다른 지방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수치에 해당된다. 일례로 **부룬디**의 국가 평균 발육부진 비율은 55.9%이고 최저 수준은 수도를 품은 부줌부라 도시주(Bujumbura Mairie)로 23.7%에 불과하다. 실상 부줌부라 도시주를 제외하고, 17개의 다른 주는 발육부진 수준이 49%에서 66%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수도를 제외한 국가 도처에 높은 수준의 발육부진이 퍼져 있음을 가리킨다(MPBGP et al. 2017).

다른 경우도 있다. 발육부진이 국가 전체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은 국가 평균 발육부진 수준이 21.2%인 반면 상가(Sangha) 주는 36.9%에 이른다. 북부의 상가 주는 발육부진 비율이 30%가 넘는 리쿠알라(Likouala) 주와 쿠벤투우에스트(Cuvette-Ouest) 주 사이에 위치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고도로 도시화됐지만(World Bank 2018d) 북부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숲이 빼곡하다(Statoids 2015). 상하 주와 쿠벤투우에스트 주는 영·유아 식사, 아동 건강, 아동 치료법 등이 크게 열악하지는 않지만 모유수유 비율이 가장 낮다. 더구나 부족할 경우 발육부진으로 연결되는 요오드 첨가 소금 섭취는(Krämer et al. 2016; Semba et al. 2008) 다른 주에 비해 두 개 주에서 상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INS and UNICEF 2015).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는 남북의 발육부진 비율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대서양 연안과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도시인 라고스(Lagos) 부근인 남부 지역은 발육부진 비율이 계속 10%와 20% 사이에 머물렀다. 반면 북부 지역에서는 50% 이상으로 올랐다(NBS and UNICEF 2017). 북부의 가정들은 평균적으로 더 가난한 경향이 있고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지역의 일부가 테러의 영향을 받으며 식량부족과 발육부진 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Akombi et al. 2017). 나이지리아 북부의 발육부진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데 이는 임산부의 영양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지리아에서 발육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Amare et al. 2018).

지리적 불평등 외에도, 성별에 따른 불평등, 인종과 민족 불평등, 교육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 발육부진 아동 외에 기아와 영양 지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을 만들 때 핵심은 이런 요소들을 문제 진단의 틀이자 해결방안 개발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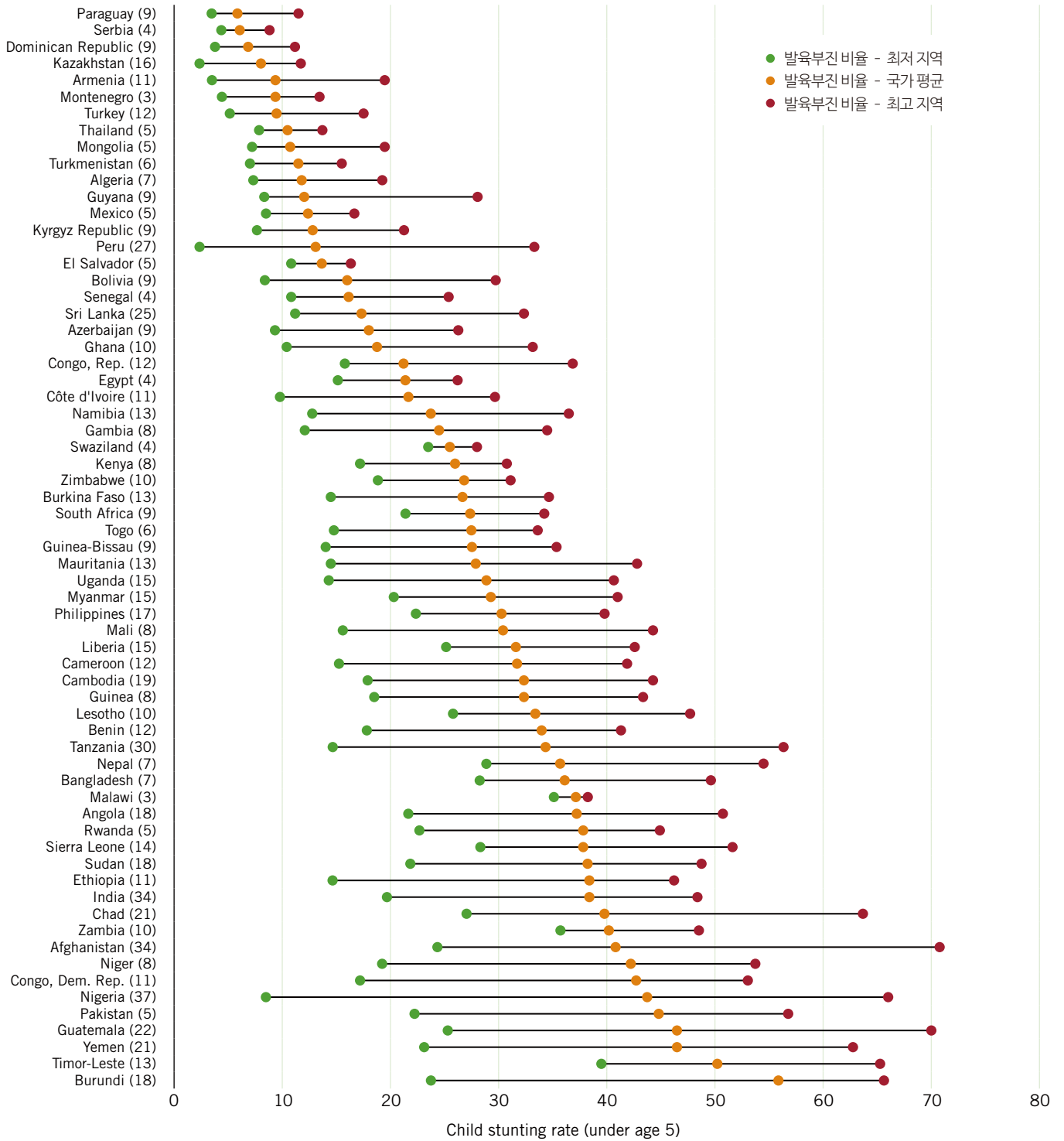
결론

2018 세계기아지수는 2000년 이후로 기아와 영양결핍이 감소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발전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최근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체는 특정 지표들로 드러난다. 2010년 이후 남아시아는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영양결핍이 확산되며 조금씩 증가 추세이다. '보통', '심각', '위험', '극히 위험'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 중 16개국은 2010년 이후로 기아 수준이 정체되었거나 심지어 악화되었다.

분쟁 중인 국가들은 더 어렵다. 식량, 깨끗한 물, 생계수단, 보건서비스 등의 붕괴는 식량과 영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은 강제이주 위기를 촉발시키고 고국 안팎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발버둥친다. 이는 세계기아지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의 국가들과 데이터가 부족해 기아 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국가들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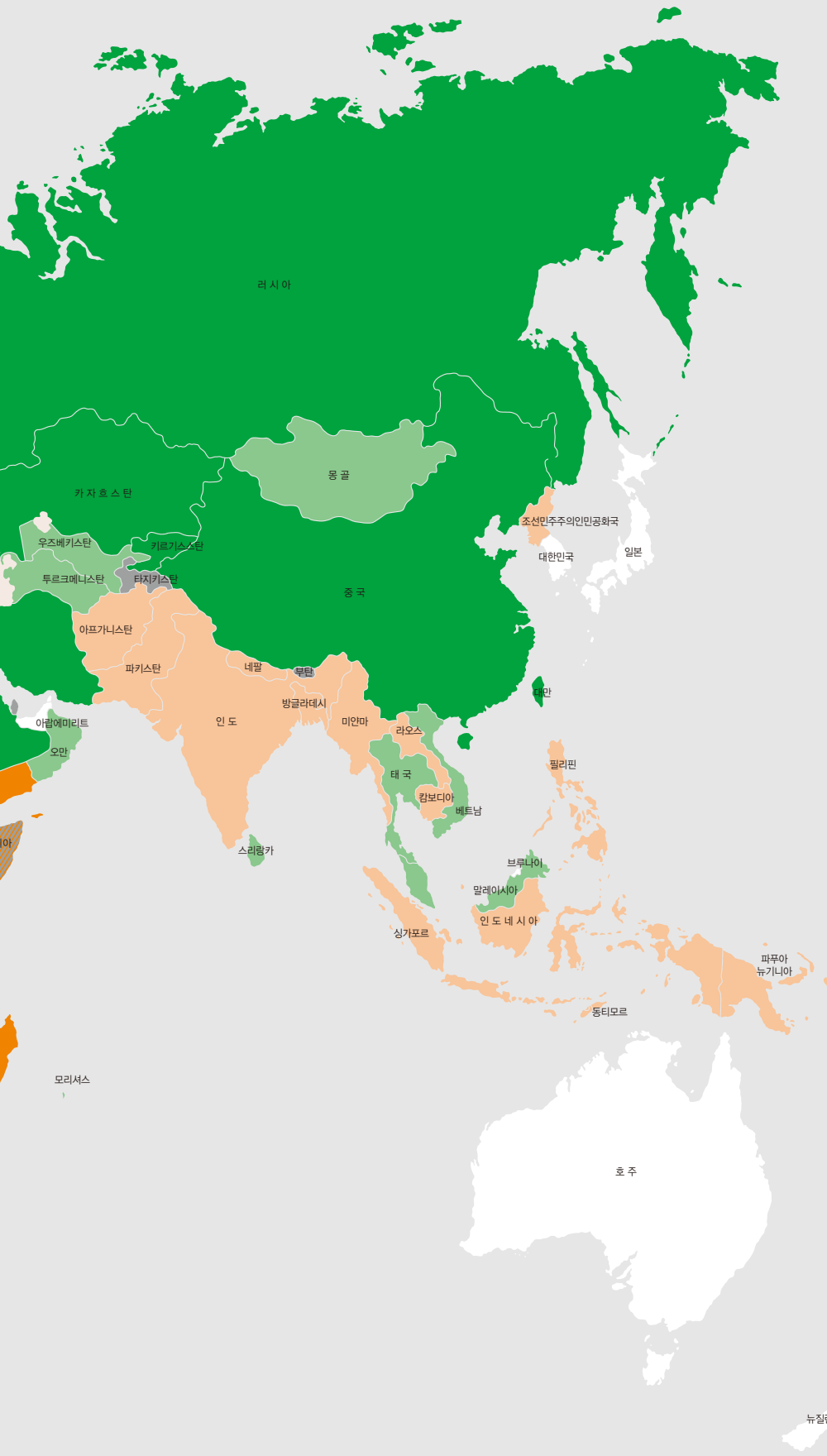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과거에 잔인한 내전과 '극히 위험' 단계의 기아 수준을 경험했던 국가들도 일단 상황이 안정되면 기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기아와 영양결핍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기아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곳과 기아를 낮추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하는 곳을 조명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계획과 정책의 성실함이 아니라, 기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더 깊고 넓게 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림 2.3 아동 발육부진의 국내 불평등



출처: 필진. 2013-2017년 UNICEF/WHO/World Bank(2018a), WHO(2018)의 조사결과에 근거

주: 국가명 뒤에 괄호로 묶은 수는 조사를 위해 분할한 지역의 수이다. 이 그림에서 발육부진 비율은 원 조사 보고서에서 직접 옮겼다. 국가 평균은 세계기아지수 계산에 쓰인 것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극히 위험(Extremely alarming)	50.0 ≤
위험(Alarming)	35.0-49.9
심각(Serious)	20.0-34.9
보통(Moderate)	10.0-19.9
낮음(Low)	≤ 9.9

불충분한 자료, 관심국가*

불충분한 자료

미산출**

*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C

**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인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오만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모리셔스

호주

피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캠프에서 한 로힝야족 난민이 다리를 뛰어 건너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백만에 달하는 로힝야족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무국적 상태이다. 전 세계 이주민의 85%는 중·저소득국가에 체류하고 있다.

강제이주와 기아

로라 해먼드(Laura Hammond)

영국 런던대학교 SOAS(SOAS University of London)

대규모로 발생하는 강제이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세계를 떠돌고 있다(그림 3.1). 6천8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세계 이주민은 4백만 명의 국내실향민, 2천540만 명의 난민과 310만 명의 망명신청자를 포함한다(UNHCR 2018g).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해 분쟁, 폭력, 자연재해 또는 인재를 피해 집과 고향을 떠나도록 내몰린다. 강제이주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 여러 요인이 얽히고 설킨 결과이다. 그리고 기아는 이주 과정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다. 수많은 강제이주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기아는 이주 시기와 목적지 선정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난민캠프에는 6천790명의 사람들이 나뭇가지나 플라스틱 판자로 지어진 임시거처에 살고 있어요. 난민캠프에서는 모두가 힘들어요. 처음 이 곳에 왔을 때에는 걸치고 있던 옷 한 벌 외엔 아무것도 없었죠. 이 곳엔 음식도, 물도, 아픈 곳을 치료할 약도 부족해요.”

- 국내실향민 여성,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캠프 (2018년 3월)

분쟁 상황에서 기아는 강제이주¹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아는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생계에 대한 도전으로 식량을 포함한 기본 욕구의 충족을 저해할 수 있다. 분쟁은 인간의 이동과 시장, 경작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데 만약 식량 구매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어렵다. 운이 좋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까지 재산의 상당부분을 지킬 수 있다.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는 기아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운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고향을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쫓기면 이미 빈털터리가 된 상태다. 이주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가 반복될 때마다 이주민의 회복력, 생계와 식량안보는 점점 약화된다. 이주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예측의 실마리를 이전의 이주 경험에서 찾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위협과 폭력의 정도, 이주국의 수용 가능한 자원 등이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인구 집단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빈곤 지역에서의 위기 상황은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기아와 이주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올해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이 그렇다. 670만 명의 시리아인이 집을 잃고 국내를 떠돌고 있으며, 5백만명은 인접한 국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IDMC 2018d; UNHCR 2018j).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4만 명의 수용 커뮤니티 주민마저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UNHCR

2017b). 1991년 소말리아 정부가 붕괴되면서 1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이 국내실향민으로 전락했고, 1백만 명은 지역 내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UNHCR 2018h). 최근 남수단에서 무력충돌이 재개되었고 240만 명의 난민과 17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다. 위 사건들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260만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95%는 이란과 파키스탄,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UNHCR 2018a). 미얀마의 로힝야족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 극심한 식량불안, 열악한 보건 상황과 폭력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로 향하면서 방글라데시는 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난민 정착지가 되었다(Safi 2018).

각 사례마다 차이점이 있는 만큼, 유사한 부분도 많다. 이주민은 거주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을 피해 떠나며, 식량을 비롯한 기본 물자의 공급상황 또한 불안하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이주민도 있다. 하지만 이주민 숫자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규모를 따져보면 이주민 수용 커뮤니티와 국가 정부 및 지역에게 막대한 부담이다. 인도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마이스타트(Maystadt)와 브라이싱거(Breisinger)가 언급했던 것처럼, “공여국의 원조가 충분하다면, 난민의 유입은 개도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5, 3)

기아와 강제이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네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기아와 강제이주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실과 오해는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이주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이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¹본 에세이 전반에 걸쳐 필자가 의미하는 '강제이주'는 국제 강제이주학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rced Migration, IASFM)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가 채택한 정의에 근거한다. 즉, “자연 및 환경 재해, 화학 및 핵 재난, 기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난민과 국내이주민의 이동(Forced Migration Online 2012; IOM 2018)”을 의미한다. 난민을 넘어 다른 형태의 이주민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이주 촉발 요인을 포괄한다. 학계뿐 아니라 실천의 영역(정책)에서 모두 채택되는 광범위한 정의로 특히 실황과 관련한 기아, 식량 및 영양 안보에 대한 논의에 적합하다.

이 글을 통해 오해에 반론을 제기하고 강제이주와 기아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 다음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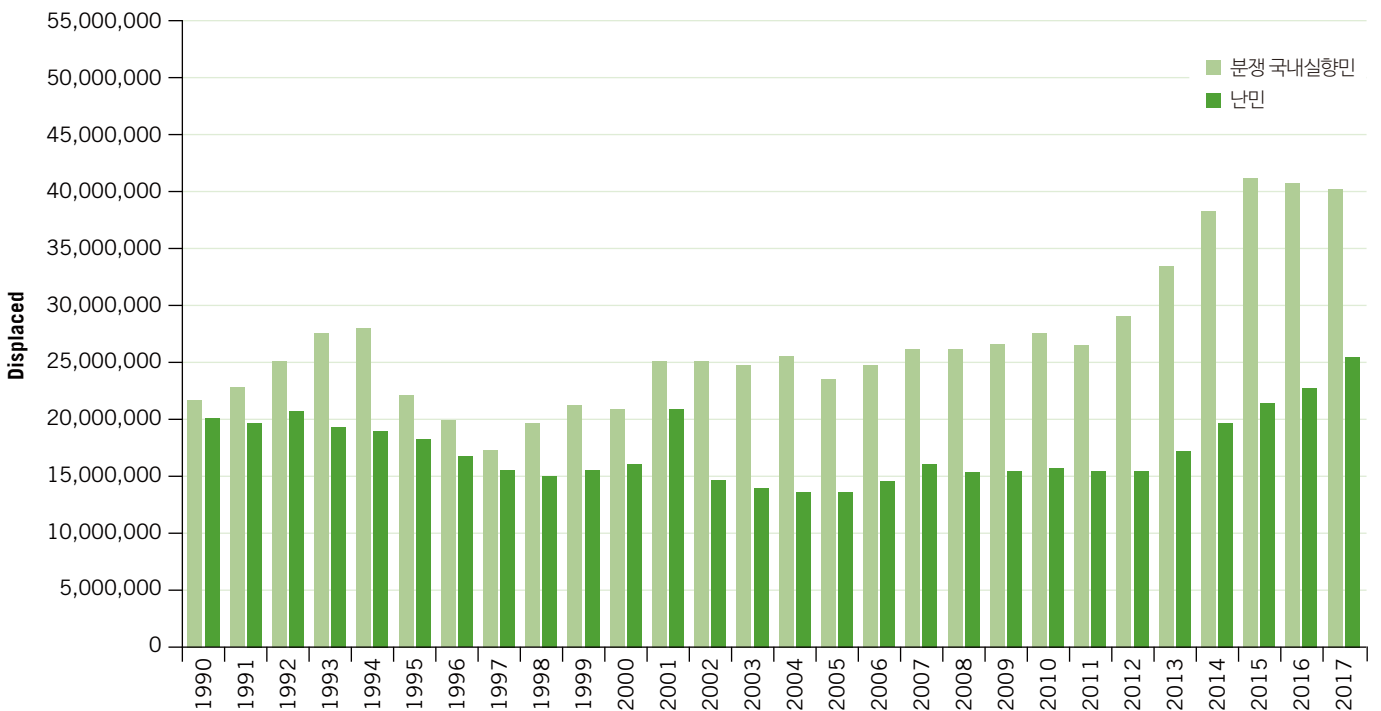
- 1. 기아와 이주**는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 2. 인도주의적 활동**만으로는 강제이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3. 식량 부족**을 겪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출신국에서 제공한다.
- 4. 지원**은 이주민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주민이라고 해서 회복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술적이고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강제이주를 대응하기에 부족하다.

강제이주와 기아에 대한 전세계의 접근방식을 재조명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중 두번째 목표로 전 세계가 함께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킬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백만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의 경우, 어떻게 난민을 수용할 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2018년 9월 UN 총회는 구속력 없는 협정인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를 비준했다. GCR은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시스템의 격차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뜻을 한데 모으고자 한다. 즉, 국가 정부와 기타 이해당사자의 부담 및 책임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UNHCR 2018f). 2018년 5월,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는 국내실향민 처리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2018-2020년 국내실향민 예방·보호·해결의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Advancing Prevention, Protection and Solutions for Internally Displaced People 2018-2020)’을 발표했다. 앞으로의 성과는 기아와 강제이주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에 달려있다.

그림 3.1 1990-2017년 분쟁과 폭력으로 강제이주한 난민과 국내실향민



출처: IDMC(2018b) UNHCR(2016, 2018g)

1 기아와 이주는 정치적 사안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기아는 쉽게 환경적 또는 자연적 요인의 원인으로 인식된다. 일례로, 2011년 소말리아에 대기근이 닥쳤을 때, '60년만에 최악의 가뭄'(BBC 2011)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분석이 많았다. 실상은, 무력충돌과 인도적 지원 및 이주 경로 차단과 동시에 소말리아 남·중부의 농업·목축지역에서 극빈, 가뭄 등이 더해져 대기근으로 이어졌다.

이주와 마찬가지로 기아 역시 정치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뭄, 홍수 및 악천후 등의 자연재해가 기아나 이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부의 역량 부재, 고의적 태만 또는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 대응력이 미비하거나 대응 의지가 부족한 경우뿐이다. 예를 들어, 가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적절한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적절한 정치적 의지까지 있다면, 가뭄이 기아나 기근까지 번질 이유는 전혀 없다.

알렉스 드 발(Alex de Waal)이 2015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대규모 기근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von Grebmer et al. 2015). 한때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하여 죽음으로 몰고 갔던 상황을 이제는 정부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역량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시민의 기대 속에서 이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커졌다. 정부는 자연재해, 경제난, 분쟁,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비상식량 비축, 자산의 보호와 축적 전략, 위험 보험, 고용정책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주장대로, 법적 절차를 걸쳐 권력에서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의 자유, 민주적 참여, 투명한 리더십 등을 통해 시민을 대표할 책임을 가진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면 기아가 발생하는 상황에 손 놓고 지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Sen 2001).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비정부 행위자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부 행위자가 기아와 이주를 막기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²,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정책이나 목표, 태만, 그리고 역량의 부재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단절되고 그 결과 기아와 이것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기근이 여전히 발생한다. 기아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향하기 쉽다(Edkins 2008; Menkhaus 2012). 2018년 기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분쟁, 무력 사태, 이주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재난의 피해로 강제이주민이 되거나 박목이 잡혀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기아의 위험도 커진다.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 결국 식량 접근을 차단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 자국 내 자유로운 이동, 농업 생산물의 시장 판매, 기본 서비스 활용이 불가능해지면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확보도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위험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아 집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례로, 2018년 **시리아**와 **예멘**에 기근이 닥쳐 이주민과 포위된 민간인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2016년 시리아에서는 이주민과 포위된 민간인 3명 중 1명은 기본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주민은 잔류하고 있는 시리아인 중 가장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었다(Lovelle 2016). 휴먼 어필은 “2014년과 비교하여 **예멘**의 가구 기아 지표(Household Hunger Scale, HHS)가 거의 3배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40%가 굶주린 배로 잠이 들며, 20%는 24시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Human Appeal 2018, 15).

국제인권법은 식량 부족과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사항에는 “민간인의 아사, 추방을 비롯한 그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민간인 및 적군의 생명유지 가치 박탈을 목적으로 식량,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 작물, 가축, 급 배수시설 및 관개설비”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포함된다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1977: Article 54(1)). 해당 조항은 기아와 분쟁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417호에서 재확인되고, 2018년 5월 통과되었다. 이로써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전쟁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인도주의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간인을 아사로 몰아가는 행위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가 흔히 사용하는 전술이다.

2011년 가뭄, 분쟁, 인도주의적 지원 부족과 높은 세계 식량가격으로 허덕이던 **소말리아**에 위의 전술까지 더해졌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고 그 결과 2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LSHTM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2013). 당시 기근 촉발의 주범은 반군단체인 알-샤바브(al-Shabaab)이었다. 알-샤바브는 가뭄의 최대 피해자인 민간인들이 모가디슈(Mogadishu)의 국내실항민 캠프나 케냐의 다답(Dadaab) 난민캠프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시켰다(Menkhaus 2012; Maxwell and Majid 2016). 가뭄 피해자의 의존을 막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처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도심에 위치한 정부군 주둔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여 외곽에서 알-샤바브의 지지 기반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알-샤바브의 전략은 대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만 심화시켰다. 동시에, 과도연방정부(TFG)가 알-샤바브 점령지역으로 들어가는 원조기구의 접근을 차단했다. 멘카우스에 따르면, “과도연방정부는 인도주의기구가 원조식량을 나르며 ‘알-샤바브’과 공조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인도주의기구는 공격 대상이 되었다. 원조기구와 관련된 사건들에는 알-샤바브가 아닌 과도연방정부 관료나 이들의 불법무장단체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주의 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활동허가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활동 환경은 예측 불가능해졌다”(Menkhaus 2012, 32).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으로 강제이주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정부는 안전과 식량 안보에 대한 시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가진다. 정부가 위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책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모든 차원의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² 이러한 이유로 정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정부 행위자도 국내실항민 처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Bellal, Giacca, and Casey-Masien, 2011)

2 인도주의적 활동만으로는 강제이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강제이주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 사회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다. 이주 위기가 닥치면,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생명을 구하고 임시거처, 의료보급, 식수 및 위생, 식량 안보 및 영양 등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주의 활동이 추진된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인명을 구하고 질병과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활동이 조직된다. 이런 활동들은 위급한 상황을 안정시키고 단기간에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열악한 이주 환경으로 인해 삶이 황폐화된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 지원은 장기적 목표를 채택하지 않는다. 난민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식량 및 식품 이외의 육구 충족을 위해 제공되며, 다수의 경우 곧 출신국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몇 해 째 객지를 떠돌면서 이러한 기대는 이미 여러 차례 그릇된 희망으로 판명되었다. 강제이주는 대체로 몇 해 혹은 몇 세대를 떠돌며 장기화된다. 전세계 2천200만 난민의 80%는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40%는 20년 넘게 객지를 떠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난민 한 명당 평균 타향살이 기간은 26년에 달한다(UNHCR 2017a). 남수단 사례와 같이,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다 귀향이 가능해져도, 폭력과 예측 불가능한 공격의 역학관계가 이주민의 발목을 잡는다.

이주의 장기화는 정치적 사안인 동시에 개발의 문제로, 이런 인식이 부재할 경우 이주민의 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기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외부 충격을 견뎌 내기가 어려워진다. 난민에게는 최소의 식량과 현금이 지원되는데 초기 위급 상황이 지나면 철결핍성 빈혈, 비타민A 결핍, 니아신 결핍으로 인한 펠라그라,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 등 미량영양소 관련 질병이 흔히 발생한다(Seal and Prudhon 2007). 이주민의 이동성, 법적 지위, 서비스 접근성, 고용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위태롭다. 노동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고, 토지나 가축과 같은 생산 자산을 소유하거나, 적절한 교육, 보건으로, 기타 서비스 등의 안정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향을 떠났거나, 주변과의 교류도 없이 집을 떠난 경우에 친척이나 이웃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주의 장기적 역학과 영향력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 장치로는 더 이상 이주민과 이주 위기에 처한 이들의 기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하기 힘들다. 그 뿐 아니라, 기아의 원인을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로부터의 회복이 앞으로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다.

케냐의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 난민은 캠프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 토지와 가축, 거의 모든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국내실향민 역시 처지는 마찬가지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소외와 빈곤 때문에 꾸준한 돈벌이도 없고 지속적 불안으로 귀향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주 장기화 문제를 개발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경우는 거의 없다. 2016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HS)는 ‘인도주의와 개발 측면에서 이주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촉구했다(WHS 2016). 정상회의에 이어 후속으로 제안된 대타협(Grand Bargain)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행위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및 개발 활동 조정을 위한 여러 계획이 고안되었다. EU의 구호, 재건 및 개발 연계(LRRD) (EU 2012), 장기화된 위기상황에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의 글로벌 전략 틀(Framework for Action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Protracted Crises, CFS 2015)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서 인도주의 지원에서 개발 지향적 방향으로 전환시킬 방법이 없다. 5년 이상의 장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지향적 지원의 자금이 부족해서 그들이 삶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긴급구호가 몇 년씩 지속되고, 장기 이주의 특성상 이주민은 만성적으로 기아와 빈곤에 취약해진다. 식량과 기본적 생계를 위해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지원마저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받지 못할 경우,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주의 장기화는 날로 증가하고 여러 단계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앞으로 실패할 정치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치 진공상태에 대한 반사적 대응은 인도적 원조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공약한 금액과 실제 전달된 금액의 차이가 커지면서 해마다 인도주의 시스템은 더 큰 부담감을 떠안고 있다. 2017년, 세계의 인도주의적 지원액은 270억 달러가 조금 넘었는데, UN이 호소했던 것보다 41%가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Development Initiatives 2018). 이렇게 큰 차액으로는 인도주의 지원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생계 독려나 회복력 구축 등 만성적 식량 불안을 해결을 위한 장기적 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하된다.

이주민 수용 커뮤니티를 위해서 보다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주민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생활하기 때문에 수용 인구 집단에서도 식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개중에는 과거 이주민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공유할 자원이 고갈되어 다시 이주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이주는 반복된다(Fiddian-Qasmiyeh 2016). 2007년 **케냐** 대선 후 발생한 폭력사태 당시, 국내실향민 수용 초기에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 역시 “높은 물가와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결국 힘겹게 먹고 살아야 했다”(Brookings-LSE 2013, 13). **콜롬비아** 사례에서도 국내 이주민과 이들을 수용한 지역민 역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소원해졌다(Arredondo et al. 2011; Brookings-LSE 2013).

3 식량 부족을 겪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출신국에서 제공한다.

2015년을 전후로 엄청난 수의 난민과 이주자가 EU 국가로 유입되면서 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사로잡았지만 이런 관심은 세계 난민 위기의 왜곡된 이미지를 낳았다. 2015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동서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포함한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 EU에 들어왔다. 근래 들어서는 난민 유입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국제이주기구(IOM)의 추산에 따르면, 2017년 18만6천768명의 비정규 이주자³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이주자와 난민)가 EU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유입 인구가 절정일 때도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은 전 세계 난민 인구의 6%에 지나지 않았다(UNHCR 2016). 더욱이, EU로 유입되는 난민들은 배고픔 외에 다른 이유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국가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식량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강제이주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언론과 정책의 지대한 관심을 받지만, 전 세계적 상황과 견주어 볼 때 실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는 적은 편이다.

실제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이면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된다.

2017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식량 위기의 원인은 예멘이나 사우디 아라비아로 유입되는 난민보다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급증이었다(EUTF REF 2018). 식량 불안을 겪게 되면 멀리 이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거나 국경을 넘더라도 가장 가까운 난민캠프나 시장 중심지로 이동한다. 주변과 교류를 지속하고 농사일, 목축, 장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 근처에 머물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인종, 종교, 언어 등이 유사한 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아와 강제이주 요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거나 유럽국가의 행동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그리고 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주 중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럽에 유입되는 인구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중심지역은 주로 빈곤한 지역들로 막대한 수의 이주민을 수용할 역량이 극히 제한적이다(그림 3.2 참조). 새로운 이주 인구가 출신 지역 내에서 흡수되는 모습).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순위가 낮은 20개국 중 16개국은 현재 또는 최근에 이주민이나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있으며 (UNDP 2017) 올해 세계기아지수에서 심각, 위험, 매우 위험으로 분류되거나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이주민이 멀리 떠나지 않고 출신지역에 머무는 경향은 국제적 합의와 법률이 기여한 바 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때문에 박해에 대한 충분한 두려움’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Article 1) (UNHCR 2010). 이에 따라, 난민이 직면한 위험은 본인 당사자를 향한 것으로, 정부의 직접적 박해

또는 난민 보호 불능이나 의지박약의 결과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 보호를 국가에 요청할 수 없을 경우, 국제난민법은 제3국이나 UN이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구속력 있는 난민 관련 지역 협약은 1951 난민협약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도 기아와 기근을 포함한 ‘시민 질서의 붕괴상황’을 난민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추가적인 합법적 근거로 인정한다.⁴

‘아프리카 국내실향민 보호 및 구호를 위한 아프리카연합 협약(African Un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Africa, 별칭 캄팔라 협약)’과 같은 역내 기구는 국내실향민에게도 보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난민에게 제공하는 법적 보호와 1951년 난민협약의 정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연합의 협약을 체결 및 비준하였으며 UN은 아프리카 내에서 위 협약을 준수한다. 하여, 기근을 피해 소말리아를 떠난 사람은 에티오피아나 케냐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되는 반면, 1951년 난민협약은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단거리 이동과 수용 커뮤니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볼 때, 식량 부족을 겪는 난민과 국내 이주민은 가능하다면 출신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식량 원조 형태로 진행되는 식량 안보 지원은 식량 조달 수송의 높은 비용, 지역 시장 왜곡 가능성, 장기간 수혜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적절한 양과 다양한 식량 제공 등 어려움이 많다. 현지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력을 유지하고 의존성의 위험을 줄이는 등 다른 지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위의 지원들이 올바른 상황에서 지원될 경우 재해 이주의 예방과 사후 복원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금 사용 유도 시기에 대한 파악이 아직 필요하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있다.⁵

이주민을 지원할 때는 그들의 이동 역량을 증진하고 그들의 생활지역 또는 주변지역에서 생계 유지 수단을 확보할 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자유로운 이동과 생계 보장이 확보되면 이주민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난민캠프에 갇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삶에 비해 지역과 국가 경제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우간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Betts et al. 2014) 우간다 정부는 남수단 난민에게 농지를 제공했다. 이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활용 가능한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난민의 회복력과 생계 지원은 폐쇄되지 않은 공간에서 실시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³비정규이주자는 입국에 필요한 승인이나 적법한 서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통해 EU에 입국하는 비정규이주자는 입국 비자가 없고, 여권이나 기타 신분 증명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⁴아프리카통일기구(現 아프리카연합)의 1969 난민협약(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과 1984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참조.

⁵일례로, 덴마크난민위원회(2014)와 안드레아스 키아비(Andreas Kiaby, 201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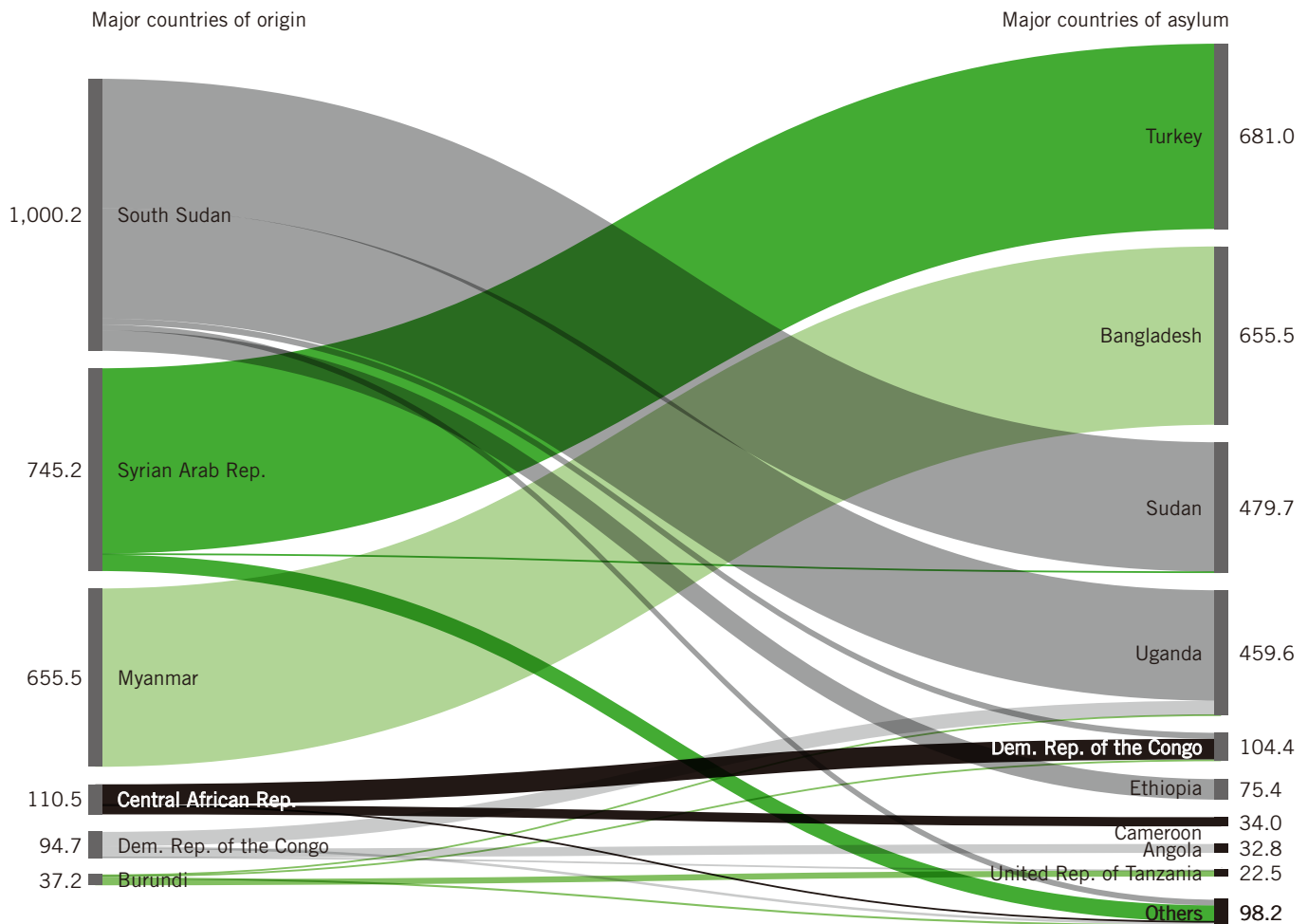
이주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동시에 기아와 싸워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지역 개발이다. 이주민 수용 커뮤니티의 경제 번성을 통해 이주민의 회복력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적 탄력성이 커지면, 보다 안전한 이주가 가능하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가까운 곳의 경제적 기회는 앞으로 이주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선택권이 많아 졌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대체로 긴 거리를 이동하는 불규칙한 이주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주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하려면 거버넌스 구조, 정부 정책, 시민 사회가 함께 개인,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회복력을 지키고 박해와 사회봉괴, 대량 강제이주와 기아로 이어질 수 있는 식량 불안을 예방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정치 이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공여국을 비롯한 지원제공 측은 이런 식의 정치적 관여가 불편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경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인구에 대한 접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이주가 발생하는 상황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조할 위험이 있다.

이주민 보호 및 지원은 주로 이주민의 출신 지역이 담당하고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전망이 희박하거나 수용국이 망명 신청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처럼 출신국이 아닌 외부의 난민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수용국의 경우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현저히 낮아 난민은 고사하고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할 역량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제3국 정착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의 수는 근래 들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난민들의 재정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2 2017년 새로운 난민 수용국 (단위: 천명)



출처: UNHCR(2018g)

4 지원은 이주민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주민이라고 해서 회복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이든 기아와 관련된 사안이든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주 전략을 취한다. 이주를 선택하는 시점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일부는 자산을 잃기 전에 이동하는 반면, 상황이 나아져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를 희망하며 고향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가족이 다 함께 움직이기도 하지만, 곧 다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집과 토지를 지키는 한 두 명의 친척을 고향에 남겨두기도 한다.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파악하고, 귀향이 어려운 상황을 밝혀내 귀향 의지를 북돋는 조치를 취하려면 (반대의 경우, 귀향이 불가능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주의 원인과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에는 지역 정치 경제의 복잡함, 분쟁의 역학 그리고 그들이 왜,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다층적인 면을 포함한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생존 수단과 회복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이주는 그 자체로 안전과 안정을 찾기 위한 수단의 행위다. 아무리 궁핍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난민과 국내실항민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론 원조 제공자들의 눈에는 원조를 악용 또는 오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만큼 창조적인 방법까지 동원된다. 충분치 않은 식량배급이 그나마도 드물게 이루어지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배급카드를 얻기 위해 나설 것이다. 상거래, 임금 노동, 목탄 판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 부족한 분량을 채우기도 한다. 일용직 임금노동, 자산 처분 등의 돈벌이를 구하거나 아이들을 도시가정으로 보내 집안일을 돕게 하는 등 다양한 생계활동에 나선다. 제공되는 지원은 겨우 생계를 이어갈 만큼 충분치 않다. 그나마도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향에 남아 살림을 돌보는 친척과 나누기도 한다. 소말리아의 국내 이주민 다수가 상황이 나아졌을 때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골에 남은 친척들과 얼마 되지 않는 지원품을 나누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있다.

난민과 국내실항민을 돕기 위한 정책은 당사자들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른 나라로의 이동, 사유재산 소유, 근로 등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케냐의 소말리아 난민의 경우가 그렇다. 이는 이주민이 양과 질이 양호한 식량을 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에티오피아와 요르단 등 일부 국가는 난민을 위해 특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내국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이런 정책들이 난민에게 소득을 제공하지만 만약 안전 위험요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난민을 오로지 노동자로만 인식하여 소득 이외의 요구는 간과하고, 수용집단과 난민 간의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Crawley 2017).

결론

강제이주와 기아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로 세계의 최극빈 지역과 분쟁취약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에세이는 사전부터 사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주민 지원 제공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주목한다. 식량 불안 이주민 지원을 위해 아래 4가지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

1. 기아와 이주를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2. 인도주의적 활동만으로는 강제이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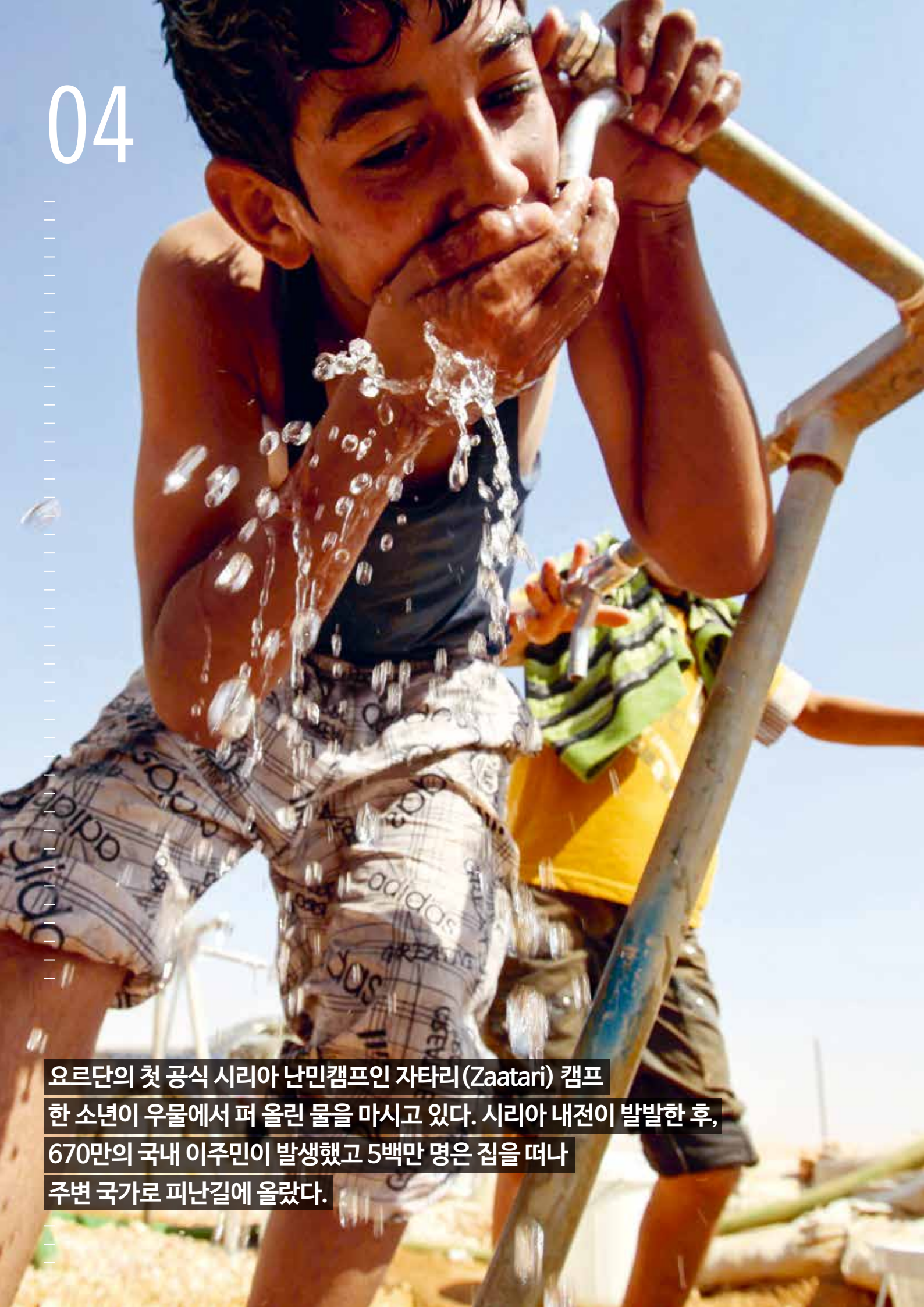
3. 식량 부족을 겪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출신국에서 제공한다.

4. 지원은 이주민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주민이라고 해서 회복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정책 문서, 국제 합의, 애드보커시 문서와 학계 문헌을 보면 위의 4가지 포인트에 대한 성의 없는 빈말만 늘어놓을 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응 이상이 요구된다. 정치적 해결 강화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동성과 소득창출기회를 활성화하고, 이주지역과 그 주변의 고용기회와 연계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에게 보건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간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주 초기에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수 년에 걸쳐 확장될 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본다면, 상당한 시간과 재원을 아끼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강제이주와 기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은 회복력을 저하시키고 기아와 이주를 촉발시키는 정치적 요인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개발 활동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출신지역에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시장 지원 및 생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자립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기아와 이주 문제는 지역적 접근방법을 통해 수용국과 수용 커뮤니티의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고 이주민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는 기근의 극심한 피해를 감소시키며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냈다. 다가올 반세기, 지구상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주 문제에서 이와 맞먹는 진전을 보게 된다면, 수백만의 식량 및 영양 안보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요르단의 첫 공식 시리아 난민캠프인 자타리(Zaatari) 캠프
한 소년이 우물에서 퍼 올린 물을 마시고 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670만의 국내 이주민이 발생했고 5백만 명은 집을 떠나
주변 국가로 피난길에 올랐다.

정책 권고

강제이주민의 수가 늘고 있다. 기아는 고향을 떠나는 원인이자 결과다. 국제사회, 국가 정부, 시민 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서야 한다.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는다

- 이주민 대다수가 체류하는 중 저소득 국가와 최저개발국에 자원 및 관심을 집중한다.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는 위 국가의 이주민과 이주민 수용 커뮤니티에 탄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국내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옹호한다. 국가 정부는 UN의 '국내 이주민 예방 보호 해결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2018-2020'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 무력충돌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과 기근의 위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UN 결의 2417호 후속조치를 취한다. 결의안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
- 여성과 여아의 취약성과 어려움 해결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여성과 여아 이주민은 자산, 서비스, 생산 및 금융 자원, 그리고 소득창출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보장한다. 젠더 기반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 여성, 남아 및 여아가 함께 노력한다.
-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기아의 여파가 가장 큰 농촌지역의 개발 가속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농가의 생계 수단 다양화와 토지, 시장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한다. 생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국내 식량 공급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장기적 해법의 마련

- 2016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HS)에서 채택된 강제이주와 관련한 주요 공약에 서술된 바 대로, 이주민의 자립과 정기적으로 식량 영양 안보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고용, 보건 의료, 농경지 및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이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 지역 통합, 자발적 귀향 등과 같은 항구적 해법을 시행한다. 인도적 입국허가와 같은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확대한다. 사람들이 장기간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도록 난민 지위 인정 심사 속도를 높이는 매커니즘을 확립한다. 난민캠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공식적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항구적 해법을 마련한다.

- 이주의 역학뿐만 아니라 기아와 강제이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융통성 있는 지원 방식을 통해 거주지를 옮겨도 돈벌이와 생계, 지인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대와 책임공유

-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CM)을 채택 및 시행하고, 이들의 공약내용을 국내의 정책 계획에 반영한다. 향후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 국가 정부는 난민과 국내 이주민을 지원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금 격차를 좁히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의 공약을 이행 및 확대하며, 불이행한 원조공약을 실천한다.
- 인도주의 원칙과 인권을 준수하며 난민, 국내실향민과 수용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공격개발원조를 이주 정책의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않는다.
- 빈곤 및 기아 감소, 기후 대응,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그리고 평화와 정의 및 강력한 제도의 증진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강제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 이주 및 난민을 주제로 한 사실 기반 논의를 장려한다. 국가 정부, 정치인, 국제기구, 시민 사회, 언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다 현명한 논의를 촉진하도록 한다.

A APPENDIXES

세계기아지수 점수 산출 공식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p>첫째, 네 가지 구성 지표 값은 각국에서 입수한 데이터로 결정한다. 지표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결핍 인구 비율 → 저체중에 허덕이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신장 대비 저체중) → 발육부진을 겪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연령 대비 저성장) →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동의 비율(영·유아 사망률) 	<p>1단계 각 구성 지표 값을 결정한다.</p> <p>PUN : 영양결핍 인구의 비율(%) CWA : 5세 미만 저체중-허약 아동의 비율(%) CST :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 CM :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동의 비율(%)</p>
<p>둘째,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에서 관찰한 해당 지표의 가장 높은 국가 값보다 조금 높게 정한 기준 값을 바탕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 지표 각각에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이 기간에 추정된 가장 높은 영양결핍 값이 76.5%이면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80%다. 해당 연도에 한 국가의 영양결핍 비율이 40%라면 그해 영양결핍 표준점수는 50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국가는 영양 결핍이 없는 상태와 최고 수준 사이에서 대략 절반에 위치한다.</p>	<p>2단계 구성 지표 표준화</p> $\text{표준 PUN} = \frac{\text{PUN}}{80} \times 100$ $\text{표준 CWA} = \frac{\text{CWA}}{30} \times 100$ $\text{표준 CST} = \frac{\text{CST}}{70} \times 100$ $\text{표준 CM} = \frac{\text{CM}}{35} \times 100$
<p>셋째, 표준 점수를 합산해서 각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한다. 영양결핍과 영·유아 사망률은 각각 세계기아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면 아동의 영양 부족 지표인 발육부진과 저체중은 각각 점수의 6분의 1을 차지한다.</p>	<p>3단계 구성 지표 합산</p> $\begin{aligned} & \frac{1}{3} \times \text{표준 PUN} \\ & + \frac{1}{6} \times \text{표준 CWA} \\ & + \frac{1}{6} \times \text{표준 CST} \\ & + \frac{1}{3} \times \text{표준 CM} = \text{GHI 점수} \end{aligned}$ <hr/> <p>= 세계기아지수 점수</p>

2018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네 지표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영양결핍: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사용해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했다. 2018년 세계기아지수의 영양결핍 데이터는 2018년 자료다(FAO 2018d)

저체중-허약 아동과 발육부진 아동: 아동 영양 부족 지표 데이터는 유엔 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동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아동성장과영양실조세계데이터베이스, 인구보건조사(DHS)와 복합요인조사(MICS)의 최신 보고서, 유엔아동기금 통계표를 추가로 사용했다(UNICEF/WHO/World Bank 2018a; WHO 2018, and authors' estimates)

영·유아 사망률: 유엔 영유아사망률추정합동기구(UN IGME)가 갱신한 데이터를 근거로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했다. 2018년 세계기아지수 영·유아 사망률 데이터는 2016년 자료다(UN IGME 2017a).

자료는 부족하지만 주목해야 할 국가

지표에 대한 자료나 추정치를 얻을 수 없어서 2018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지 못한 나라는 총 13개국이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인 분쟁으로 인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기아와 영양결핍의 강력한 예측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나라들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용가능한 데이터와 국제기구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 7개국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부룬디: 1천1백만 명 인구 중 약 167만 명의 부룬디인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FAO GIEWS 2018). 아동 발육부진 수치에 근거하면 부룬디 전역에 만성 영양실조가 퍼져 있다. 부룬디의 발육부진 아동 비율은 55.9%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국가 중 가장 높다.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수십 년간 계속되는 분쟁과 광범위한 빈곤에 시달려왔다. 2016년 이후 폭력의 증가로 2017년 12월 현재, 약 450만 명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7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이웃 국가로 넘어갔다(UNHCR 2018d; USAID 2018c). 2017년에는 시골 지역의 77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다(IPC 2017).

에리트레아: 영양실조는 에리트레아가 직면한 가장 큰 공공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WHO and MOH 2014; WHO 2014). 발육부진 아동 비율은 52.8%로 추정되며, 저체중-허약 아동 비율은 14.5%로 추정되지만 이 지표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없다. 에리트레아의 영양실조는 제한된 경작지, 물 부족, 그리고 잦은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리비아: 2011년 아랍의 봄 시위와 독재자 무하마드 카다피의 체포와 죽음 이후, 리비아는 통치권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다. 분쟁과 불안정은 농업 생산을 방해했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식품의 공급을 줄였다.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국내실향민은 특히 시장 불안에 취약하다(FAO GIEWS 2017a). 발육부진 아동율은 25.3%이고 저체중-허약아동은 3.9%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은 1.3%로 추산된다.

소말리아: 2011년 소말리아는 기근으로 2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Seal and Bailey 2013), 2017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다시 기근 직전까지 갔다(FEWS NET 2017). 2018년의 상황은 나아졌지만, 북부와 중부 지역의 식량은 크게 부족하다. 2015~2017년 영양결핍 인구는 50.6%로 추산되는데 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영·유아 사망률은 13.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수단: 2013년에 시작된 내전이 남수단을 위기에 빠뜨렸다. 2017년 2월, UN은 유니티 주의 두 개 군이 기근 상태라고 선언했다(FEWS NET 2018c). 2018년 2월 현재,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식량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FEWS NET 2018c). 10명 중 1명의 아이들은 자신의 다섯 번째 생일까지 살지 못한다.

시리아: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식량 부족은 심각해졌다. 2018년 6월 현재, 1천8백만 인구 중 1천50만 명의 사람들이 치솟는 식품 가격, 광범위한 이주, 시장 및 운송 시스템 파괴, 농업의 손상 그리고 일자리와 생계의 손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량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USAID 2018b). 2018 세계기아지수에서는 영양결핍, 발육부진, 저체중,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최신 수치는 찾을 수 없었다.

확인가능한 세계기아지수 개별 지표 값

Country	Undernourishment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2015-2017 (%)	Child Stunting Prevalence of stunting in children under five 2013-2017 (%)	Child Wasting 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five 2013-2017 (%)	Child Mortality Under-five mortality 2016 (%)
Burundi	—	55.9	5.1	7.2
Congo, Dem. Rep.	—	42.6	8.1	9.4
Eritrea	—	52.8*	14.5*	4.5
Libya	—	25.3*	3.9*	1.3
Somalia	50.6	—	—	13.3
South Sudan	—	37.6*	28.6*	9.1
Syrian Arab Republic	—	—	—	1.8
Global Average**	12.3	27.9	9.3	4.2

출처: 필진

2000, 2005, 2010, 2018 세계기아지수 산출기초자료

Country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he population (%)				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				Prevalence of stun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				Under-five mortality rate (%)			
	'99-'01	'04-'06	'09-'11	'15-'17	'98-'02	'03-'07	'08-'12	'13-'17	'98-'02	'03-'07	'08-'12	'13-'17	2000	2005	2010	2016
Afghanistan	46.1	33.2	22.1	30.3	14.0 *	8.6	9.1 *	9.5	54.3 *	59.3	50.9 *	40.9	13.0	11.0	9.0	7.0
Albania	7.2	10.9	7.4	5.5	12.2	7.3	9.4	7.7 *	39.2	27.0	23.1	18.2 *	2.6	2.0	1.7	1.4
Algeria	10.7	8.8	6.3	4.7	3.1	4.0	4.2 *	4.1	23.6	15.9	13.1 *	11.7	4.0	3.4	2.7	2.5
Angola	71.5	54.8	40.4	23.9	8.8 *	8.2	6.0 *	4.9	47.0 *	29.2	34.5 *	37.6	20.7	16.7	11.9	8.3
Argentina	3.5	4.7	4.0	3.8	1.8 *	1.2	1.6 *	1.6 *	10.2 *	8.2	8.2 *	7.6 *	1.9	1.7	1.5	1.1
Armenia	23.8	7.8	5.5	4.3	2.5	5.5	4.2	4.2	17.7	18.2	20.8	9.4	3.0	2.3	1.8	1.3
Azerbaijan	23.0	5.5	<2.5	<2.5	9.0	6.8	6.6	3.1	24.1	26.8	16.4	18.0	7.4	5.2	3.9	3.1
Bahrain	—	—	—	—	6.6 *	5.9 *	3.1 *	3.0 *	13.4 *	11.1 *	3.7 *	4.1 *	1.3	1.1	0.9	0.8
Bangladesh	20.8	16.6	16.9	15.2	12.5	11.8	15.7	14.3	50.8	45.9	41.4	36.1	8.7	6.7	4.9	3.4
Belarus	<2.5	3.0	<2.5	<2.5	2.5 *	2.2	2.1 *	1.9 *	6.5 *	4.5	4.1 *	3.0 *	1.3	0.9	0.6	0.4
Benin	22.7	15.4	11.8	10.4	9.0	8.4	7.1 *	4.5	39.1	44.7	36.5 *	34.0	14.4	12.4	11.1	9.8
Bhutan	—	—	—	—	2.5	6.0 *	5.9	4.8 *	47.7	40.9 *	33.6	28.3 *	7.7	5.8	4.3	3.2
Bolivia	33.4	30.3	26.5	19.8	1.6	1.7	1.5	2.0	33.1	32.5	22.7	16.1	8.0	6.1	4.7	3.7
Bosnia & Herzegovina	4.4	3.2	<2.5	<2.5	7.4	4.0	2.3	2.9 *	12.1	11.8	8.9	8.9 *	1.0	0.9	0.7	0.6
Botswana	35.7	31.9	28.5	28.5	6.0	8.1 *	7.2	6.3 *	29.1	28.5 *	31.4	26.1 *	8.4	7.0	5.3	4.1
Brazil	11.9	4.6	<2.5	<2.5	3.2 *	1.6	2.7 *	5.5	12.1 *	7.1	9.9 *	13.4	3.6	2.6	2.0	1.5
Bulgaria	4.8	6.5	5.6	3.0	3.5 *	3.2	3.2 *	2.8 *	10.6 *	8.8	7.7 *	6.1 *	1.8	1.3	1.1	0.8
Burkina Faso	25.4	24.9	21.2	21.3	15.7	24.4	15.4	7.6	45.5	42.4	35.1	27.3	18.1	15.5	11.6	8.5
Burundi	—	—	—	—	8.2	9.0	6.1	5.1	63.1	57.7	57.5	55.9	15.1	12.4	9.4	7.2
Cambodia	29.3	20.0	18.8	18.5	16.9	8.3	10.8	9.6	49.2	43.7	40.9	32.4	10.7	6.6	4.4	3.1
Cameroon	30.8	20.3	11.5	7.3	6.2	6.8	5.8	5.2	38.2	35.9	32.6	31.7	16.6	13.6	10.8	8.0
Central African Republic	42.5	39.5	32.0	61.8	10.5	12.2	7.4	9.2 *	44.6	45.1	40.7	46.2 *	17.2	16.4	14.9	12.4
Chad	40.1	39.2	40.0	39.7	13.9	16.1	15.7	13.0	39.3	44.8	38.7	39.9	18.5	16.9	15.0	12.7
Chile	4.7	3.9	4.2	3.3	0.5	0.5	0.3	0.3	3.0	2.3	2.0	1.8	1.1	0.9	0.9	0.8
China	15.9	15.2	11.8	8.7	2.5	2.9	2.3	1.9	17.8	11.7	9.4	8.1	3.7	2.4	1.6	1.0
Colombia	9.7	9.7	11.1	6.5	1.1	1.5	0.9	1.1 *	18.1	16.2	12.7	12.2 *	2.5	2.2	1.9	1.5
Comoros	23.1	16.5	19.8	20.4	13.3	9.6	11.1	9.8 *	46.9	49.8	32.1	41.8 *	10.3	10.0	8.8	7.3
Congo, Dem. Rep.	—	—	—	—	20.9	14.0	8.5	8.1	44.4	45.8	43.5	42.6	16.0	13.7	11.6	9.4
Congo, Rep.	36.8	40.2	40.5	37.5	8.5 *	8.0	5.9	8.2	27.6 *	31.2	25.0	21.2	11.7	9.0	6.4	5.4
Costa Rica	5.1	5.4	5.2	4.4	1.6 *	1.5 *	1.0	1.4 *	7.8 *	6.1 *	5.6	4.9 *	1.3	1.1	1.0	0.9
Côte d'Ivoire	20.4	20.0	21.9	20.7	6.9	8.4	7.6	6.0	31.5	40.1	29.6	21.6	14.6	12.8	11.1	9.2
Croatia	10.4	2.9	2.5	<2.5	1.4 *	1.3 *	1.3 *	1.2 *	1.4 *	1.3 *	1.4 *	1.0 *	0.8	0.7	0.6	0.5
Cuba	3.7	<2.5	<2.5	<2.5	2.4	2.7	2.3 *	2.0 *	7.0	7.5	5.6 *	4.7 *	0.8	0.7	0.6	0.6
Djibouti	48.1	32.2	22.3	19.7	19.4	26.0	21.5	16.7 *	26.5	32.6	33.5	27.4 *	10.0	8.9	7.7	6.4
Dominican Republic	28.1	24.4	16.5	10.4	1.5	1.9	1.8 *	2.4	8.0	10.5	8.0 *	7.1	4.1	3.7	3.4	3.1
Ecuador	18.5	17.0	10.7	7.8	3.2	2.2	2.2 *	1.6	32.5	27.5	25.4 *	23.9	3.5	2.9	2.5	2.1
Egypt	5.2	5.4	4.5	4.8	7.0	5.3	7.9	9.5	24.6	23.8	30.7	22.3	4.7	3.6	2.9	2.3
El Salvador	11.0	10.5	12.4	10.3	1.5	1.3	1.6	2.1	32.3	24.6	20.6	13.6	3.3	2.5	1.9	1.5
Equatorial Guinea	—	—	—	—	9.2	2.8	3.1	2.7 *	42.6	35.0	26.2	26.0 *	15.2	13.1	11.1	9.1
Eritrea	—	—	—	—	14.9	14.4 *	15.3	14.5 *	43.7	48.6 *	50.3	52.8 *	8.9	6.9	5.5	4.5
Estonia	5.6	4.2	2.6	2.8	2.9 *	2.7 *	2.7 *	3.4 *	7.1 *	6.1 *	6.3 *	6.0 *	1.1	0.7	0.5	0.3
Ethiopia	52.0	39.7	32.1	21.4	12.4	12.3	10.1	9.9	57.4	50.7	44.2	38.4	14.4	11.0	8.1	5.8
Fiji	4.8	4.3	4.5	4.4	7.9 *	6.3	6.3 *	7.2 *	5.7 *	7.5	4.0 *	4.5 *	2.2	2.3	2.4	2.2
Gabon	10.5	10.9	10.8	9.4	4.3	3.6 *	3.4	3.7 *	26.3	22.1 *	17.5	20.9 *	8.5	7.6	6.4	4.7
Gambia	13.1	15.1	9.3	9.6	8.9	7.4	9.5	11.1	24.1	27.6	23.4	25.0	11.7	9.7	8.0	6.5
Georgia	13.5	7.2	7.7	7.4	3.1	3.0	1.6	3.3 *	16.1	14.7	11.3	9.1 *	3.6	2.5	1.7	1.1
Ghana	15.6	9.3	5.3	6.1	9.9	6.1	6.2	4.7	31.3	28.1	22.7	18.8	10.0	8.7	7.5	5.9
Guatemala	20.5	15.8	15.8	15.8	3.7	2.0 *	1.1	0.7	50.0	50.5 *	48.0	46.5	5.2	4.3	3.5	2.9
Guinea	26.3	21.3	17.6	19.7	10.3	10.8	8.0	8.1	46.9	39.3	36.8	32.4	16.6	13.2	10.9	8.9
Guinea-Bissau	25.7	24.4	22.2	26.0	11.8	8.9	5.8	6.0	36.1	47.7	32.2	27.6	17.4	14.5	11.4	8.8
Guyana	8.3	9.4	11.2	7.5	12.1	8.3	5.3	6.4	13.8	18.2	19.5	12.0	4.6	4.2	3.8	3.2
Haiti	54.9	57.1	49.5	45.8	5.6	10.3	5.2	6.7 *	28.3	29.7	21.9	26.0 *	10.5	9.0	20.8	6.7
Honduras	19.6	17.0	15.2	15.3	1.2	1.4	1.4	1.5 *	34.5	29.9	22.7	22.4 *	3.7	2.9	2.3	1.9
India	18.2	22.2	17.5	14.8	17.1	20.0	16.7 *	21.0	54.2	47.9	42.2 *	38.4	9.2	7.4	5.9	4.3
Indonesia	17.8	18.5	12.4	7.7	5.5	14.4	12.3	13.5	42.4	28.6	39.2	36.4	5.2	4.2	3.3	2.6
Iran	4.9	6.1	5.8	4.9	6.1	4.8	4.0	3.8 *	20.4	7.1	6.8	7.4 *	3.4	2.6	1.9	1.5
Iraq	28.3	28.2	27.3	27.7	6.6	6.4	7.4	5.2 *	28.3	23.8	22.6	19.7 *	4.5	4.1	3.7	3.1
Jamaica	7.4	7.0	8.8	8.9	3.0	3.9	3.5	3.6	6.6	5.1	4.8	6.2	2.2	2.0	1.8	1.5
Jordan	12.6	6.6	8.2	13.5	2.5	2.2 *	1.6	2.4 *	12.0	9.4 *	8.3	10.6 *	2.8	2.4	2.1	1.8
Kazakhstan	5.9	5.9	3.1	<2.5	2.5	4.9	4.1	3.1	13.9	17.5	13.1	8.0	4.3	3.2	2.2	1.1
Kenya	31.3	28.2	23.5	24.2	7.4	7.7	7.0	4.0	41.0	40.9	35.2	26.0	10.1	8.1	6.2	4.9
Kuwait	<2.5	<2.5	<2.5	<2.5	2.2	3.3	2.4	3.1	4.0	4.5	4.1	4.9	1.3	1.2	1.1	0.8
Kyrgyz Republic	16.3	9.7	8.3	6.5	3.4 *	3.4	1.3	2.8	23.1 *	18.1	22.6	12.9	4.9	3.9	3.0	2.1
Lao PDR	37.7	27.0	21.1	16.6	17.5	7.3	6.4	7.8 *	48.2	47.6	43.8	33.5 *	11.7	9.6	7.9	6.4
Latvia	5.3	<2.5	<2.5	<2.5	2.8 *	2.7 *	2.8 *	3.6 *	7.4 *	6.5 *	6.5 *	6.4 *	1.4	1.1	0.8	0.5
Lebanon	<2.5	3.4	4.5	10.9	4.7 *	6.6	4.0 *	4.7 *	15.9 *	16.5	12.3 *	15.7 *	2.0	1.4	1.0	0.8
Lesotho	13.6	11.7	12.7	12.8	6.7	5.6	3.9	2.8	53.0	45.2	39.0	33.2	11.0	11.5	10.0	9.4

2000, 2005, 2010, 2018 세계기아지수 산출기초자료

Country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he population (%)				Prevalence of was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				Prevalence of stunting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				Under-five mortality rate (%)			
	'99-'01	'04-'06	'09-'11	'15-'17	'98-'02	'03-'07	'08-'12	'13-'17	'98-'02	'03-'07	'08-'12	'13-'17	2000	2005	2010	2016
Liberia	38.4	39.4	36.5	38.8	7.4	7.8	2.8	5.6	45.3	39.4	41.8	32.1	18.4	12.5	8.9	6.7
Libya	—	—	—	—	7.4 *	6.5	6.3 *	3.9 *	26.8 *	21.0	19.9 *	25.3 *	2.8	2.3	1.7	1.3
Lithuania	<2.5	<2.5	<2.5	<2.5	3.2 *	2.9 *	2.8 *	3.5 *	6.6 *	5.6 *	4.8 *	6.2 *	1.1	0.9	0.6	0.5
Macedonia, FYR	7.9	6.1	4.4	4.1	1.7	3.4	4.3	2.6 *	8.0	11.5	7.7	6.9 *	1.6	1.4	1.0	1.2
Madagascar	34.4	35.0	31.8	43.1	10.3 *	15.2	9.4 *	8.4 *	55.2 *	52.8	49.2	46.1 *	10.8	8.2	6.2	4.6
Malawi	27.1	26.1	21.8	26.3	6.8	6.3	4.1	2.7	54.6	52.5	47.8	37.1	17.5	11.5	9.1	5.5
Malaysia	2.8	3.9	3.7	2.9	15.3	11.7 *	10.4 *	11.5	20.7	17.2	16.2 *	20.7	1.0	0.8	0.8	0.8
Mali	14.6	11.1	6.9	6.0	12.6	15.3	8.9	13.5	42.7	38.5	27.8	30.4	22.0	17.2	13.7	11.1
Mauritania	11.6	12.1	8.2	11.3	15.3	13.4	12.2	14.8	39.5	28.9	22.5	27.9	11.3	10.9	9.7	8.1
Mauritius	6.6	5.2	4.8	5.8	15.2 *	16.0 *	15.1 *	9.4 *	12.3 *	11.2 *	9.6 *	8.4 *	1.9	1.6	1.5	1.4
Mexico	4.4	5.5	4.6	3.8	2.3	2.0	1.6	1.0	21.7	15.5	13.6	12.4	2.7	2.1	1.7	1.5
Moldova	—	—	—	—	3.7 *	5.8	1.9	3.0 *	12.0 *	11.3	6.4	6.8 *	3.1	2.0	1.7	1.6
Mongolia	35.1	31.0	20.8	18.7	7.1	2.7	1.7	1.0	29.8	27.5	15.5	10.8	6.3	4.1	2.6	1.8
Montenegro	—	—	<2.5	<2.5	—	4.2	2.8 *	2.8	—	7.9	9.4 *	9.4	—	—	0.7	0.4
Morocco	6.8	5.7	5.2	3.9	4.2 *	10.8	2.3	3.7 *	24.2 *	23.1	14.9	17.4 *	5.0	4.1	3.4	2.7
Mozambique	40.3	37.0	30.0	30.5	6.8	5.4	6.1	4.3 *	49.6	47.0	43.1	38.0 *	17.6	13.4	10.1	7.1
Myanmar	48.3	32.0	16.9	10.5	10.7	10.7	7.9	7.0	40.8	40.6	35.1	29.2	9.0	7.8	6.4	5.1
Namibia	26.2	25.1	37.4	25.4	10.0	7.5	6.7 *	7.1	29.5	29.6	26.1 *	23.1	7.5	7.1	5.6	4.5
Nepal	22.0	16.0	10.1	9.5	11.3	12.7	11.2	9.7	57.1	49.3	40.5	35.8	8.2	6.2	4.7	3.5
Nicaragua	32.6	24.4	20.9	16.2	2.3	0.3	2.2	1.4 *	25.2	18.8	17.3	17.3 *	4.0	3.1	2.5	2.0
Niger	21.6	15.1	11.3	14.4	16.2	12.4	16.0	10.3	54.2	54.8	47.0	42.2	22.7	17.2	12.3	9.1
Nigeria	9.3	6.5	6.2	11.5	17.6	12.3	10.2	10.8	39.7	42.9	36.0	43.6	18.7	15.8	13.0	10.4
North Korea	37.5	35.4	41.8	43.4	12.2	8.5	5.2	8.1 *	51.0	43.1	32.4	39.8 *	6.0	3.3	3.0	2.0
Oman	11.9	10.5	5.6	5.4	7.3	9.9 *	7.1	7.5	12.9	15.2 *	9.8	14.1	1.7	1.3	1.2	1.1
Pakistan	23.4	23.3	21.1	20.5	14.2	13.3 *	14.8	10.5	41.5	42.6 *	43.0	45.0	11.3	10.2	9.2	7.9
Panama	27.7	22.9	13.2	9.2	1.3 *	1.2 *	1.2	1.1 *	21.3 *	22.2	19.1	13.3 *	2.6	2.3	2.0	1.6
Papua New Guinea	17.9	20.1	20.2	26.6	8.3 *	4.4	14.3	7.2 *	48.1 *	43.9	49.5	39.7 *	7.7	7.3	6.5	5.4
Paraguay	12.9	11.9	12.2	11.2	2.2 *	1.1	2.6	1.0	16.9 *	17.5	10.9	5.6	3.4	2.9	2.4	2.0
Peru	21.8	19.6	11.2	8.8	1.1	1.0	0.7	1.0	31.3	29.8	23.3	13.1	3.9	2.7	2.0	1.5
Philippines	20.4	16.3	13.3	13.7	8.0	6.0	7.3	7.1	38.3	33.8	33.6	33.4	4.0	3.6	3.2	2.7
Qatar	—	—	—	—	2.8 *	3.4 *	2.5 *	2.1 *	3.0 *	2.5 *	1.6 *	1.6 *	1.3	1.0	0.9	0.9
Romania	<2.5	<2.5	<2.5	<2.5	4.3	3.4 *	3.5 *	3.0 *	12.8	12.0 *	11.2 *	7.6 *	2.2	1.8	1.2	0.9
Russian Federation	5.1	<2.5	<2.5	<2.5	4.4 *	4.0 *	4.1 *	4.2 *	15.8 *	13.6 *	13.5 *	11.3 *	1.9	1.4	1.0	0.8
Rwanda	55.6	45.3	35.0	36.1	8.7	4.8	3.0	2.0	48.3	51.7	44.3	37.3	19.5	11.5	6.4	3.9
Saudi Arabia	6.1	7.9	7.0	5.5	7.6 *	11.8	6.1 *	5.4 *	11.2 *	9.3	7.8 *	8.2 *	2.2	1.8	1.6	1.3
Senegal	28.7	21.6	13.1	11.3	10.0	8.7	9.8	7.2	29.5	20.1	28.7	17.0	13.4	9.6	6.7	4.7
Serbia	—	—	5.9	5.6	—	4.5	3.5	3.9	—	8.1	6.6	6.0	—	—	0.8	0.6
Sierra Leone	39.6	37.0	27.0	25.5	11.6	10.2	8.4	9.4	38.4	46.9	38.8	37.9	23.4	20.4	16.0	11.4
Slovak Republic	5.9	6.2	4.3	2.7	3.5 *	3.2 *	3.2 *	3.4 *	7.8 *	7.2 *	6.6 *	5.8 *	1.0	0.8	0.7	0.6
Somalia	67.7	60.8	58.9	50.6	19.3	13.2	15.0	—	29.2	42.1	25.3	—	17.4	17.4	15.9	13.3
South Africa	5.0	4.4	4.4	6.1	4.5	7.4	5.2	2.5	30.1	32.8	26.1	27.4	6.7	7.4	5.4	4.3
South Sudan	—	—	—	—	—	—	22.7	28.6 *	—	—	31.1	37.6 *	—	—	—	9.1
Sri Lanka	18.6	18.2	13.8	10.9	15.5	14.7	11.8	15.1	18.4	17.3	19.2	17.3	1.6	1.4	1.1	0.9
Sudan	—	—	—	25.2	—	—	15.3	16.3	—	—	34.1	38.2	—	—	—	6.5
Suriname	13.0	10.9	8.0	7.6	7.0	4.9	5.0	5.2 *	14.5	10.7	8.8	9.5 *	3.4	2.8	2.4	2.0
Swaziland	19.2	17.0	23.2	20.7	1.7	2.9	0.8	2.0	36.6	29.5	31.0	25.5	11.8	12.5	9.7	7.0
Syrian Arab Republic	—	—	—	—	4.9	10.3	11.5	—	24.3	28.6	27.5	—	2.4	1.9	1.6	1.8
Tajikistan	—	—	—	—	9.4	8.7	4.3	6.7 *	42.1	33.1	28.8	24.8 *	9.3	6.5	5.2	4.3
Tanzania	36.5	34.4	34.6	32.0	5.6	3.5	4.9	4.5	48.3	44.4	42.5	34.4	13.2	9.4	7.2	5.7
Thailand	18.8	12.5	9.2	9.0	6.5 *	4.7	6.7	5.4	19.8 *	15.7	16.3	10.5	2.3	1.8	1.5	1.2
Timor-Leste	—	31.3	29.2	27.2	13.7	14.3	18.9	11.0	55.7	54.8	57.7	50.2	—	8.2	6.3	5.0
Togo	31.1	26.0	21.0	16.2	12.4	16.3	4.8	6.7	33.2	27.8	29.8	27.5	11.9	10.4	9.0	7.6
Trinidad & Tobago	11.6	11.8	9.6	4.9	5.2	5.6 *	6.3	5.1 *	5.3	7.1 *	11.0	5.7 *	2.8	2.6	2.2	1.9
Tunisia	4.9	5.6	4.8	4.9	2.9	3.4	2.8	3.4 *	16.8	9.0	10.1	10.9 *	3.2	2.3	1.7	1.4
Turkey	<2.5	<2.5	<2.5	<2.5	3.0	1.1	0.8	1.7	19.1	15.6	12.3	9.5	3.9	2.7	1.9	1.3
Turkmenistan	8.2	4.8	4.8	5.5	7.1	7.1	6.3 *	4.2	28.1	18.8	16.2 *	11.5	8.3	7.3	6.2	5.1
Uganda	27.7	24.1	30.9	41.4	5.0	6.3	4.8	3.6	44.8	38.7	33.7	28.9	17.0	12.0	8.1	5.3
Ukraine	4.5	<2.5	<2.5	3.3	8.2	1.5 *	1.5 *	1.4 *	22.9	8.5 *	8.0 *	6.6 *	1.8	1.5	1.2	0.9
Uruguay	4.2	4.3	2.5	<2.5	2.3	3.0	1.3	2.0 *	12.8	13.9	10.7	9.3 *	1.7	1.4	1.1	0.9
Uzbekistan	16.2	14.5	9.0	7.4	8.9	4.5	6.4 *	5.8 *	25.3	19.6	20.5 *	14.8 *	6.3	4.9	3.6	2.4
Venezuela	16.4	10.5	3.1	11.7	3.9	4.8	4.1	3.5 *	17.4	16.2	13.4	13.0 *	2.2	1.9	1.7	1.6
Viet Nam	24.3	18.2	13.6	10.8	9.0	10.7	7.1	6.4	43.0	33.2	29.3	24.6	3.0	2.5	2.3	2.2
Yemen	29.9	30.1	25.7	34.4	15.7 *	15.2	13.3	16.3	54.4 *	57.7	46.6	46.5	9.5	7.3	5.6	5.5
Zambia	47.4	51.1	50.0	44.5	5.7	5.6	5.3 *	6.3	57.9	45.8	46.9 *	40.0	16.1	11.0	8.3	6.3
Zimbabwe	40.2	42.2	41.9	46.6	8.5	7.3	3.5	3.2	33.7	35.8	33.7	26.8	9.7	10.0	9.0	5.6

Note: — = Data not available or not presented. Some countries did not exist in their present borders in the given year or reference period.

*Authors' estimates.

PARTNERS



Who we are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고통을

줄이고 극심한 빈곤을 근절할 목적으로 1968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비정부, 국제 인도주의 단체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아일랜드, 영국, 미국,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3,300명이 넘는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직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25개국에서 활동한다. 특히 2015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 지부를 설립해 아시아 지역에서 컨선월드와이드의 가치를 전파하는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What we do

컨선월드와이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하고 컨선월드와이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스스로 꾸준히 진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빈민이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같은 뜻을 품은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장기적인 개발 사업을 펼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개발 교육과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빈곤의 기저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

Our vision

빈곤과 공포, 압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품위있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이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고 존경을 받는 세상.



Who we are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는 독일 최대의 비정부 구호 단체다. 196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에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기아에 대항하는 첫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기아탈출 캠페인(Freedom from Hunger Campaign)의 독일 지부였다.

What we do

세계기아원조는 기아와 빈곤과 싸운다. 세계기아원조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다. 긴급 재난 구호에서 장기적인 개발 협력 사업까지 통합적인 구호 활동을 제공한다. 2017년에 410개 해외 사업을 통해 38개국에서 사람들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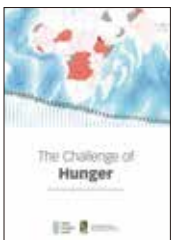
How we work

자립을 돕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현지 파트너 조직과 더불어 상향식 구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도모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고 국내외 정책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아와 빈곤을 낳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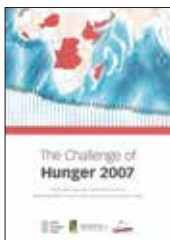
Our vision

모든 사람이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엄과 정의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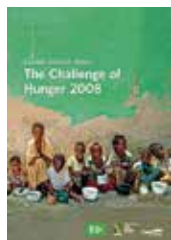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
 발행처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재단
 발행인 이준모
 번역 강윤석 이지혜 고지혜



전후 국가 아프가니스탄과 시에라리온 사례 연구



급성 영양 불량과 만성 기아를 줄이기 위한 기아지수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



금융 위기와 젠더 불평등



아동 영양 부족 위기



가격 폭등과 과도한 식량 가격 변동 억제



토지, 식수, 에너지 압박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



식량과 영양 안보를 이루는 복원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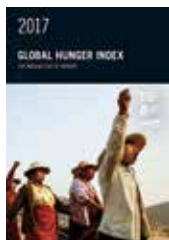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기아의 위험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험



기아가 없는 세상



기아의 불평등



강제이주와 기아

IMPRINT

Deutsche Welthungerhilfe e.V.

Friedrich-Ebert-Straß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Secretary General:

Mathias Mogge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Chief Executive Officer:

Dominic MacSorley

Recommended citation: K. von Grebmer, J. Bernstein, L. Hammond, F. Patterson, A. Sonntag, L. Klaus, O. Towey, C. Foley, S. Gitter, K. Ekstrom, and H. Fritschel. 2018. *2018 Global Hunger Index: Forced Migration and Hunger*. Bonn and Dublin: Welthungerhilfe and Concern Worldwide.

Design: muehlhausmoers corporate communications gmbh, Cologne, Germany

Printing: DFS Druck Brecher GmbH, Cologne, Germany

Authors:

Welthungerhilfe: Fraser Patterson (Policy Advis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rea Sonntag (Policy Advisor, Nutrition and Right to Food), Lisa Maria Klaus (Policy and External Relations); Concern Worldwide: Olive Towey (Head of Advocacy, Ireland & EU), Connell Foley (Director of Strategy, Advocacy, and Learning); Independent Consultants: Klaus von Grebmer, Jill Bernstein, Heidi Fritschel

Data team:

Jill Bernstein (Independent Consultant), Seth Gitter and Kierstin Ekstrom (Towson University)

Guest Author:

Laura Hammond (Reader in Development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Editor:

Heidi Fritschel

Ordering number: 460-9555

ISBN: 978-0-9560981-2-2

Cover photography: A woman walks to collect water early in the morning at a camp for IDPs in Bentiu, South Sudan. Welthungerhilfe/Stefanie Gliński 2018.

Other photo credits:

Page 2: Welthungerhilfe/Stefanie Gliński 2018; page 6: Welthungerhilfe/Thomas Rommel 2018; page 10: Panos/Sanjit Das 2011; page 24: Welthungerhilfe/Daniel Pilar 2017; page 34: Welthungerhilfe/Thomas Rommel 2018; page 44: [M] Xinhua/Ghosh/Gamma/laif 2012.

Acknowledgments:

We are grateful to the Statistics Division (ES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s well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or their indispensable support throughout the data-compilation process. We wish to thank Gershon Feder for conducting a peer review of this report. We appreciate Grant Price's careful review of the report. Finally, we gratefully acknowledge the ongoing support and guidance of Doris Wiesmann.

Disclaimer: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e maps herein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Welthungerhilfe or Concern Worldwide.

**Creative Commons:**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ND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ebsite:

www.globalhungerindex.org